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5

조 선 로 동 당 중 앙 위 원 회 기 관 지 제 2 4 5 1 2 호 】 주제 1 0 3 (2 0 1 4) 년 4월 9일 (수요일)

향하여 앞으로!

위대한 김정은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조 선 로 동 당 제 1 비 서 이 신 경 애 하 는 김 정 은 동 지 의 지 도 밑 에 선 로 동 당 중 앙 위 원 회 진 정 치국회의가 행 였 되

조선로동당 제1비서 이시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방 위원회 제1위원장 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의 지도밑에 4월 8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회의가 진행되 였다.

조선로동당 중앙 회의에는 당중앙 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

하였다.

들과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 제출할 국가지도기관구성안이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신 차제 나아가는 우리 군대와 인 위원들, 후보위원들이 참가 국회의에서는 혁명발전의 요구 토의되였다. 경 애 하는 김정은동지 께서 민의 투쟁을 힘있게 고무추동

앙 위 원 회 부 장 , 제 1 부 부 문제가 토의되였다.

에 맞게 당의 령도적역할과 회의에서는 또한 조직문제가 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하고 강성국가건설과 조국통일

내각부총리들과 일부 당중 기능을 높이기 위한 기구보강 취급되였다.

장, 부부장들이 방청으로 참 정치국회의에서는 최고인민 회의에서는 해당 의정들에 대한 더욱 강화하고 나라의 존엄 사적인 계기로 된다. 회의 제13기 제1차회의에 결정이 만장일치로 채택되였다. 과 자주권을 굳건히 수호

설을 힘있게 다그 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과업을 제시 하시였다. 우리 당과 인민의

하 며 인 민 생 활 향

상 과 부 강 조 국 건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의 지도밑에 진행된 조선로동당 중앙위 원회 정치국회의는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의 기치 를 높이 들고 자주 의 길, 선군의 길, 사회주의의 길로 힘

정치국회의에서 우리 당을 의 혁명적대사변을 앞당기는데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필승불패의 혁명적당으로 서 중요한 리정표를 마련한 력

본사정치보도반





한 정 일 통 지 의 강 성 국 가 건 녉 군 조 선 마

오늘 우리 군대와 인민은 경건한 마음을 안고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모신 21돐을 맞 이하고있다.

주체 8 2 (1 9 9 3)년 4월 9일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모신것은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 선군혁명위업의 승리 적전진과 강성국가건설을 위한 투쟁 에서 거대한 의의를 가지는 력사적 사변이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의 중책은 우리 조 국과 민족의 존엄을 상징하고 대표 하는 국가의 최고직책이다. 백전백승 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불세출의 정치군사가이신 위대한 김정일동지 를 공화국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심 으로써 어버이수령님의 주체적인 국가건설사상과 업적을 빛나게 계승 발전시키며 백두에서 개척된 우리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갈수 있 는 확고한 담보가 마련되게 되였다.

지금 우리 군대와 인민은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령도따라 준엄한 시련 속에서 강성국가건설의 새 력사를 창조해온 긍지높은 로정을 감회깊이 돌이켜보고있으며 경애하는 원수님의 두리에 굳게 뭉쳐 우리 조국을 존엄 높고 번영하는 백두산대국으로, 김일성, 김정일조선으로 빛내여나갈 불타는 결의에 넘쳐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선군의 기치밑에 강력한 총대에 의거하여 우리 조국과 민족의 존엄과 최고리익을 수호하시고 주체의 내 나라,사회주의 내 조국을 불패의 사회주의강국으 로 빛내여주시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국방위원회 위원장의 중책을 지니시고 우리 공 화국을 이끌어오신 력사는 비범한 예지와 강철의 담력, 탁월한 령도력 으로 어버이수령님의 최대의 애국 유산인 주체의 내 나라, 내 조국을 불패의 위력을 지닌 사회주의국가로 온 누리에 떨치신 승리와 영광의 년 대기로 빛나고있다.

지난 세기 90년대는 우리 조국 력사에서 류레없이 준엄한 시련의 시기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복잡 다단한 세계정치정세속에서 군사를 제일국사로 내세우시고 인민군대를 무적의 혁명강군으로 강화발전시키 시였으며 우리 조국을 그 어떤 침략 세력도 범접할수 없는 군사강국으로 일떠세우시였다. 이민위천의 사상을 우리 당의 모든 로선과 정책작성의 기초로,국가활동의 출발점으로 삼고 철저히 구현해나가도록 하신 어버이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는 우리 식 사회주의의 공고성과 불패성의 근본원천이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밑에 혁명적군인정신을 구현하 기 위한 투쟁속에서 강계정신이 창조되고 성강의 봉화, 라남의 봉화 가 타올랐으며 새로운 혁명적대고조 가 일어나 경제강국건설의 튼튼한 토대가 마련되게 되였다.

그 어느 나라, 어느 민족도 겪어보 지 못한 최악의 역경속에서 우리 조 국의 존엄과 영예를 굳건히 수호하고 강성국가건설의 장엄한 시대를 펼쳐 놓은것은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만이 안아오실수 있는 력사의 기적이다. 오 로지 조국과 민족의 강성번영을 위하 여 생애의 마지막순간까지 초인간적 인 정력으로 현지지도강행군길을 이 어가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 을 우리는 영원히 잊을수 없다.

위대한 김정일동지는 견결한 자주정치로 우리 공화국의 존엄과 위용을 세계만방에 높이 떨쳐주신 탁월한 수령이시다.

주체의 원칙,자주로선은 나라와 민족의 부강번영의 초석이며 사대와 외세의존은 예속의 길, 망국의 길이 다. 정치가의 위대성은 자주정신의 견결성에 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국가건설과 활동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우리의 사상과 신념, 우리의 결심과 의지에 따라 우리 혁명의 리익에 맞게 우리 식으로 풀어나가도록 현명하게 령도하여오시였다. 우리 식대로 살아 나가는것, 이것이 위대한 장군님께서 한평생 간직하고 구현해오신 정치 신조였고 혁명실천이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견결한 자주정치가 있었기 에 우리 혁명의 명맥이 세기를 이어 굳건히 고수되고 우리 조국은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의 항로를 따라 드팀없이 전진하게 되였다. 당당한 인공지구위 성제작 및 발사국, 핵보유국으로서의 우리 조국의 위용은 위대한 장군님의 투철한 자주정신의 빛나는 결실이다.

위대한 장군님의 자주정치는 제국 주의의 침략과 전쟁정책을 반대하고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 진보적인민 들속에서 커다란 공감을 불러일으켰 으며 우리 공화국의 존엄과 지위를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웠다. 자주정치 로 하여 우리 조국은 자기 힘으로, 자기 식대로 부강번영을 이룩해나가 는 강력한 사회주의보루로 빛을 뿌 리게 되였다. 우리 공화국을 자주적 대가 확고하고 주체성과 민족성이 철저히 구현되는 자주의 강국으로 빛내이신것은 위대한 장군님의 특출

弖

한 민족사적업적이다. 위대한 김정일동지는 독창적인 선군정치로 우리 공화국을 불패 의 군사강국으로 일떠세워주신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다.

강력한 총대우에 사회주의위업의 승리가 있다는것이 우리 혁명력사에 의하여 뚜렷이 확증된 철리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선군정치를 사회주의기본정치방식으로 확립 하시고 강력한 군력에 의거하여 나 라의 전반적국력을 천백배로 다져나 가는 백승의 강국건설력사를 창조하 시였다. 군대이자 당이고 국가이고 인민이며 국가건설과 활동을 비롯한 모든 사업에서 선군의 원칙을 확고 히 견지해야 한다는것이 위대한 장군님의 드림없는 의지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우리 공화국의 존엄과 최고리익, 후손만대의 번영을 굳건히 담보할수 있는 강력한 군력 을 마련하시기 위하여 바치신 정력 과 로고는 그 무엇으로써도 다 헤아 릴수 없다.위대한 장군님의 선군 령도에 의하여 우리 인민군대는 무적필승의 백두산혁명강군으로 억세게 자라나고 우리의 국방공업이 만능의 백두산병기창으로 강화발전 되게 되였으며 온 나라가 난공불락

의 요새로 다져지게 되였다. 지금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의 반 공화국책동은 위험계선을 넘어서고 있지만 우리의 배심은 든든하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한평생을 바치시 여 마련해주신 무진막강한 군사적잠 재력이 있기에 최후승리는 우리의것 이라는것이 천만군민의 철석같은 신 념으로 되고있다. 선군으로 백배해진 우리의 총대는 공화국의 자주권과 존엄을 건드리려는 적들을 무자비하 게 격멸소탕하고 온 겨레의 숙원인

조국통일의 대사변을 반드시 안아 오고야말것이다.

위대한 김정일동지는 숭고한 인덕 정치로 우리 조국을 세상에 둘도 없는 화목한 사회주의대가정으로 전변시 키신 자애로운 인민의 어버이이시다.

인민들이 절대적으로 공감하고 심장으로 받들어나가는 정치가 가장 우월하고 위력한 정치이다.

인민에 대한 열화와 같은 사랑과 헌신은 위대한 장군님의 천품이였 다. 나라마다 국가지도자들이 있지만 병사들과 인민들에 대한 불보다 뜨거운 사랑을 지니시고 천만군민과 한덩어리가 되여 나라의 정치사상적 위력을 굳건히 다져오신 위대한 장군님과 같으신 걸출한 정치가, 인민의 어버이를 력사는 알지 못하고 있다. 인민을 위해서라면 하늘의 별도 따와야 하고 타산을 앞세우지 말아야 한다는것이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뜻이였다.위대한 장군님의 하늘같 은 인덕은 최전연초소의 병실들과 대홍단의 평범한 제대군인가정에도 깃들어있고 도처에 수풀처럼 일떠선 인민사랑의 기념비적창조물들에도 뜨겁게 새겨져있다.생애의 마지막 시기까지 인민행렬차를 타시고 끊임 없는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시며 한없이 고결한 덕망으로 위대한 혼연 일체의 서사시를 수놓아오신분이 우리 장군님이시다.

위대한 장군님의 사랑과 믿음의 정치, 인덕정치는 우리 혁명대오, 온 사회가 하나의 동지의 세계를 이루 게 한 자양분이였다. 령도자와 군대 와 인민이 사상과 뜻, 생사운명을 함 께 해나가는 일심단결의 대진군속에 서 고난의 행군, 강행군에서의 승리 가 이룩되였고 후손만대의 행복과 번 영을 위한 고귀한 재부들이 마련되 게 되였다. 펼치면 바다가 되고 쌓으 면 하늘에 닿을 위대한 장군님의 한생의 업적이야말로 인민을 위하여 쌓아올리신 인민사랑의 결정체이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선군조선

의 무궁한 번영을 위하여 이룩하신 최대의 업적은 령도의 계승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신것이다. 일찌기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

위업을 대를 이어 계승완성하는것을 필생의 사명으로 내세우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천리혜안의 선견지명으 로 조국과 민족의 장래를 위한 사업에 크나큰 심혈을 기울여오시였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백두의 천출위인들의 사상과 령도력,인덕을 그대로 닮으 신 또 한분의 걸출한 선군령장을 진두에 높이 모심으로써 대를 이어 수령복, 장군복을 누리게 되였다. 우 리 혁명에서 후계자의 유일적인 령도 체계를 수립하기 위한 중대한 사업이 사소한 우여곡절이나 편향도 없이 최상의 수준에서 진행될수 있은것은 전적으로 위대한 장군님의 로숙하고

퓓

세련된 령도의 고귀한 결실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의 중책을 지니시고 력사의 생눈길을 진두에서 헤치시며 우리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번영을 위하 여 하실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해놓 으신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업적은 천추만대에 길이 빛날것이다.

오늘 우리앞에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위대한 장군님의 강성국가건설위업을 받들 어 선군조선의 새로운 번영기를 열어놓아야 할 책임적이고도 무거운 과업이 나서고있다.

위대한 장군님의 슬하에서 자라난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있어서 장군님의 유훈을 받들어 강성국가 건설에 한몸 다 바치는것은 응당한 의 높은 존엄과 강성번영이 있다. 도리이며 본분이다.

우리는 위대한 장군님의 전사, 제자라는 영예와 사명감을 언제나 심 장깊이 새기고 오늘의 총진군에 박 차를 가하여 선군조선의 비약과 번 영의 기상을 높이 떨쳐나가야 한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강성국가 건설사상과 업적을 옹호고수하고

끝없이 빛내여나가야 한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강성국가 건설사상과 업적은 과학이고 승리이 며 우리 조국과 민족의 만년재보이

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새로운 주체 100년대의 거창한 혁명실천속 에서 위대한 장군님의 사상과 뜻대 로 혁명과 건설을 전진시켜나가는데 최후승리가 있다는것을 심장으로 절감하고있다.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 민들은 위대한 장군님을 백두산대국 의 영원한 선군태양으로, 영원한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천세만세 높이 받들어모셔야 한다.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철두철미 위대한 장군님께서 가르쳐 주신대로, 장군님식대로 풀어나가야 한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는 을 펼쳐온 영웅적조선인민군의 자랑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한치의 드팀도, 한걸음의 양보도 없이 무조건 끝까지 결사관철하는 혁명적 기풍을 높이 발휘하여야 한다. 어버이장군님께서 끊임없는 선군 혁명령도의 자욱을 새겨가시며 강성 번영의 씨앗을 뿌리시고 풍성한 열매로 맺게 하여주신 귀중한 밑천 들이 실지 은이 나고 그 잠재력이 최대로 발휘되도록 하여 장군님의 업적을 끝없이 빛내여나가야 한다.

우리 공화국의 존엄과 강대성의 상징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나가야 한다.

오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무한한 충정 과 조국과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 랑, 필승의 신념과 락판을 지니시고 강성국가건설위업을 최후승리에로 확신성있게 이끌어나가고계신다. 정 치군사강국인 우리 공화국을 경제강 국, 사회주의문명국의 지위에 하루빨 리 올려세워 위대한 장군님의 념원 을 기어이 실현하시려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결심은 확고부동하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를 한마음한 뜻으로 받들어나가는데 백두산대국

우리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단결의 유일중심, 령도의 유일중심으 로 높이 받들어모시고 당과 혁명대 오의 사상의지적통일과 단결을 철통 같이 다져나가야 한다. 당의 유일적 령도밑에 전당, 전군, 전민이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강철같은 혁명적규률 과 질서를 더욱 철저히 확립해나가 야 한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상과 의도를 지상의 명령으로 여기고 당의 사상판철전, 당정책옹위전을 더욱 과감히 벌려나가야 한다.

우리 당의 선군정치, 선군혁명 로선을 철저히 구현하여 강성국가 건설에서 새로운 승리를 이룩해나가 야 한다.

우리 당의 선군정치,선군혁명 로선은 지구상에 제국주의가 남아있 는 한 항구적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할 전략적인 로선이고 정치방식이며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위업의 승리적 전진을 위한 백승의 기치이다.

전체 인민군장병들은 수령결사 옹위의 구호를 더욱 높이 추켜들고 우리 공화국과 더불어 백승의 위훈 스러운 력사와 전통을 끌없이 빛내여 나가야 한다. 언제나 계급적원쑤들 에 대한 비타협적인 투쟁정신을 지 니고 고도의 격동상태를 견지하며 적들의 무모한 전쟁도발책동을 백두 산총대로 무자비하게 짓뭉개버려야 한다. 국방공업부문에서는 현대전의 요구에 맞게 백두산혁명강군의 병기 창을 더욱 굳건히 다져나가야 한다.

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새로운 비약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켜나가야 한다. 우리 혁명의 개척기에 창조된 백두의 혁명정신은 오늘도 래일도 굳건히 계승하고 구현해나가야 할 고귀한 사상정신적재보이다. 모든 일 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선군조 선의 국력에 대한 크나큰 긍지와 자 부심을 안고 원대한 포부와 락관에 넘쳐 올해총진군에서 새로운 기적과 위훈을 끊임없이 창조해나가야 한 다. 자력갱생이 강성국가건설의 진로 라는것을 명심하고 무슨 일이나 자 체의 힘으로 해나가는 견인불발의 투쟁정신을 높이 발휘하여야 한다. 누구나 최첨단돌파전은 자기 초소, 자기 일터에서 자기들이 벌려야 한다는 자각을 지니고 우리 조국의 모든것을 세계에 없는 사회주의재부 로 만들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야 한다. 온 사회에 총대중시, 군사 중시기풍이 꽉 차넘치게 하며 군민 협동작전, 집단적혁신으로 사회주의 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승리 의 개가를 높이 울려나가야 한다.

일군들은 우리 당의 강성국가건설 위업을 앞장에서 받드는 혁명의 지휘성원이다.

모든 일군들은 전당이 선전원, 선동원이 되고 누구나 다 정치사업 을 하여야 한다는 당의 의도를 항상 명심하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판철을 위한 투쟁에로 힘있게 고무추동하여야 한 다. 우리 당이 제시한 새로운 병진 로선을 철저히 구현하여 우리의 국력을 천백배로 다지기 위한 사업 을 잘해나가야 한다. 모든 일군들이 들끓는 현실속에 깊이 들어가 대중 과 고락을 함께 하면서 이신작칙으 로 오늘의 총진군을 박력있게 이끌 어나가는 기관차가 되여야 한다.

모두다 당의 두리에 일심단결하여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강성국가건설 념원을 빛나게 실현해나가자.

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되신

중

앙

었다.

보

대

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되신 21돐경축 중앙 보고대회가 8일 혁명의 수도 평양에 적인 선군정치로 우리 조국을 불패 서 진행되였다.

력사의 날을 맞이하는 온 나라 천 만군민은 탁월한 사상리론활동과 없는 경모심과 백두의 대업을 굳건 정력적인 령도로 우리 공화국의 존엄 고 강성국가건설의 만년토대를 마련 김정은원수님에 대한 열화같은 신뢰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최대의 경의와 영원무궁한 영광을 드리고있다.

> 의 사회주의강국으로 전변시켜주신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에 대한 다함 히 이어 김일성,김정일조선을 끝없이 빛내여나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이 휘날리는 라는 글발이 걸려있었다. 대회장인 4.25문화회판은 독창 공화국기를 배경으로 모셔져있

> 이며 향도자인 조선로동당 만세!》,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 의인민공화국 만세!》라는 구호들이 대회장에 나붙어있었다.

하여주신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께 의 정으로 세차계 끓어번지고있었다. 러운 혁명전통을 상징하는 혁명의 이 서있었다.

대회장정면에는 위대한 령도자 성산 백두산모형과 《경축 21돐》이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최대의 경의를 드립니다》, 《위대한 《조선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 김정은동지의 선군혁명령도를 충성 으로 받들자!》라는 구호들이 대회 장에 나붙어있었다.

주석단에는 조선인민군 륙군,해 군, 항공 및 반항공군, 로농적위군 군 주석단배경에는 우리 당의 영광스 기들이 세워져있었으며 명예위병들 범기동지, 로두철동지, 최부일동지,

위대한

す

김영남동지, 박봉주동지, 최룡해동 였다. 지, 장정남동지, 김기남동지, 최태복 동지, 양형섭동지, 리용무동지, 강석 주동지, 김영일동지, 김평해동지, 곽

조연준동지, 태종수동지와 김영대

김일성동지께와

대회에는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우리 공화국의 영원한 국방위원회 제1차회의 참가자들, 당, 무력, 성, 도당책임비서들, 무력기관, 내각, 근 위원장으로 높이 받들어모시고 중앙기관 일군들, 평양시내 공장, 기 로단체, 성, 중앙기관 일군들, 공로자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선군령도 업소일군들, 로력혁신자들이 참가하 들이 주석단에 나왔다.

대회는 애국가의 주악으로 시작되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적열정이 차넘치는 가운데 진행되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였다. 내각 총리인 박봉주동지가 보고를 하였다.

대회는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을

따라 우리 조국을 세계가 우러러보 는 천하제일강국, 사회주의문명국 으로 빛내여나갈 참가자들의 혁명

대회는 《김정일장군의 노래》 주악 으로 끝났다.

【조선중앙통신】

김정은동지께

주조 무관단이 꽃바구니와 축하편지를 드리였다

김정은동지께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되신 21돐 축하편지를 무판단 단장인 하싼 레자 허쎄이니 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제1비서, 이란이슬람공화국대사관 무관이 8일 인민무력부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으로 장정남동지에게 전달하였다. 높이 추대되신 2돐에 즈음하여 주조 무관단이 꽃바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구니와 축하편지를 드리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드리는 꽃바구니와

본사기자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 꽃바구니

에 8일 김영남동지, 박봉주동지, 최룡해동지를 비롯한 당과 국가, 군대의 책임일군들과 최고인민 회의 제13기 제1차회의에 참가 할 대의원들이 꽃바구니를 진정하

였다. 대의원들은 이 땅우에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국가를 일떠 씌여져있었다.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세우시고 불패의 정치군사강국으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 강화발전시키신 백두산절세위인들 대국의 영원한 영상이신 위대한 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정을 안고 대원수님들을 천세만세 높이 모시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동상에 꽃바 김일성,김정일조선의 힘이시고 구니와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삼가 승리와 영광의 기치이신 경애하는

인사를 드리였다.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글발이 에 넘쳐있었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은 백두산 김정은동지의 선군령도따라 사회주 꽃바구니의 댕기에는 《위대한 의강성국가건설과 주체혁명위업의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갈 불타는 열의

본사기자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 위대 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절절한 그리움에 휩싸여있었다.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1차 회의에 참가할 대의원들이 8일

를 표시하였다. 주체의 최고성지를 찾은 그들은 이 땅우에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 주의를 일떠세우시고 조국과 민족의 륭성번영을 위한 만년토대를 마련해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숭고한 경의

위대 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와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에 대한 대원수님들의 립상을 우러러 그들은

그들은 주체혁명위업의 승리적전 진과 더불어 태양민족의 100년사 김정일대원수님께서 생전의 모습으 에 뜨겁게 어려있는 절세위인들의 영광스러운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 을 가슴뜨겁게 되새기며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립상을 모신 홀에 들 어섰다.

주신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주체의 영원한 태양이신 위대한 과대원수님들께서 생애의 마지막시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였다.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께서와 로 계시는 영생홀들에서 그들은 백두산절세위인들께 삼가 인사를 드 리였다.

그들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에 대한 우리 인민과 세계 진보적인류의 열화 백두산대국의 위대한 영상이시며 같은 흠모의 정이 어린 훈장보존실들

기까지 현지지도와 외국방문의 길에 서 리용하신 승용차와 전동차, 배, 렬

차보존실들을 주의깊게 돌아보았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을 우리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으로,영원한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모시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선군혁명령도따라 백두산대국의 존엄과 위용을 만방에 펼쳐갈 혁명적열의에 넘쳐있었다.

칭송하였다.

본사기자

래 하여 인도네시아 에서는 업적토론 회가, 에티오피아

에서는 업적토론회와 좌담회가 3월 24일부터 4월 2일까지의 기간에 진 행되였다.

태양절에 즈음

행사들에는 인도네시아 아디따 아 리야쁘라위라선박회사, 에티오피아 청년주체사상연구위원회산하 7개 지부들, 에티오피아 카디스코종합병 원의 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하였다. 인도네시아 아디따 아리야쁘라위

라선박회사 사장은 다음과 같이 언

양 여래 나 라 에 서 급하였다.

그이께서 이룩하신 불멸의 업적에 대한 토론회를 진행하게 된것을 기 쁘게 생각한다.

조선인민은 김일성주석의 탄생일 을 태양절로, 민족최대의 경사스러 운 날로 성대히 맞이하고있다.

최근 조선반도의 정세가 매우 긴

행 행 λ 장하고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의 인도네시아인민이 열렬히 흠모 반공화국압살책동이 극심해지고있지 하는 김일성주석의 탄생일을 맞으며 만 조선인민은 존경하는 김정은각하 의 현명한 령도밑에 사회주의길로

힘차게 나아가고있다.

에티오피아청년주체사상연구 위원회산하 7개 지부들의 토론자들 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여 혁명과 건 설에 빛나게 구현해오신데 대하여

여 에티오피아 카디 스코종합병원 기술 부원장은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ōŀ

김일성주석은 한세대에 두 제국주 의를 타승하시고 조선을 정치군사강 국으로 전변시키신 강철의 령장이시 며 인류자주위업실현에 자신의 한생 을 깡그리 바치신 세계정치원로이 시다.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조선인민과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마음속에 영생하신다.

【조선중앙통신】

백두산대국의 위대한 영상 천만년 길이 빛나리 위 대 한 령 도 자 김 정 일 동 지 랍 상 관 개 관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사상과 업적으로 강성 번영하는 태양조선의 영광과 자랑을 더해주 며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랍상관이 개관되였다.

만민칭송의 대보물고 인 국제친선전람관에 새 로 꾸려진 어버이장군님 의 랍상관은 선군의 기 치높이 불패의 강국을 일뗘세우시고 시대와 력 사를 정의와 평화의 한 길로 이끄신 불세출의 대성인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심의 최고정화이며 백두산대국의 만년재보

랍상판에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혁명의 성산 백두산정 에 야전복차림으로 거연히 서시여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주체혁명의 최후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전진해나 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 을 축복해주시는 모습을 형상한 랍상이 정중히 모셔져있다.

또한 위대한 장군님께 세계 여러 나라 인사들 과 인민들이 올린 선물 들이 전시되여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랍상관이 새 로 꾸려짐으로써 조국과 혁명,시대와 인류앞에 🙈

영원불멸할 업적을 쌓아올리신 어버이장군님 의 고귀한 혁명생애와 천출위인상을 무궁 토록 빛내일수 있게 되였으며 국제친선전 람관은 태양민족, 태양조선의 더없는 대국 보판으로 온 누리에 자랑떨치게 되였다.

개관식이 8일에 진행되였다. 김기남동지,최태복동지,양형섭동지 와 관계부문 일군들, 국제친선전람판 일 군들과 종업원들, 군인들과 건설자들,

랍상관을 훌륭히 꾸리는데 기여한 단위

류홍재 주조 중화인민공화국 특명전권대 사와 대사관성원들, 중국위인랍상관 관장 일행이 개관식에 초대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최태복동지가 개관사 를 하였다.

연설자는 전당, 전군, 전민이 승리의 신심 드높이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선 에서 비약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켜나가 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랍상판 개판식을 가지게 된 다고 말하였다.

어버이장군님의 랍상을 국제친선전람 판에 정중히 모시게 된것은 위대한

며 자랑이라고 하면서 그는 다음과 같이

로 진보적인류의 다함없는 칭송을 받으신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한생은 탁월한 사상리론과 비범한 령도력, 고결한 풍모를 지니시고 장구한 기간 우리 혁명 과 인류자주위업을 승리에로 령도하시여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위대한 풍부화하시여 우리 인민과 진보적인 류의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였으며 독 창적인 선군정치로 제국주의련합세력 의 악랄한 침략책동을 단호히 짓부시 여 조국의 존엄과 자주권을 굳건히 지켜주시고 동북아시아와 세계의 평 을 쌓으시였다.

을 벌리시여 세계정치사에 불멸의 자 욱을 새기신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는 세계인민들로부터 정의와 평화 의 상징, 인류자주위업의 걸출한

크나큰 심혈과 로고를 기울이시였으며 몸소 중국을 여러차례 방문하시여 중국인 주체의 선군태양으로, 만민의 어버이 _ 민의 마음속에 더없이 숭고하고 아름다운 형제적우의의 화원을 꽃피우시였다.

하기에 중국인민은 김정일동지를 가장 친근한 벗으로, 위대한 성인으로 높이 우리 르며 끝없이 경모하고있다.

시대와 력사앞에 영구불멸할 업적을 쌓아 온갖 지성을 다 바쳐 위대한 령도자 인민을 이끄시여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신 올리신 불세출의 위인의 가장 빛나 김정일동지의 랍상을 성의껏 형상하고 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모습그대로 더 잘 형상완성한것은 절세위인에 대한 중국인민과 우리 인민 의 다함없는 흠모심과 가장 숭고한

경의의 표시이다. 연설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랍상과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랍상을 훌륭히 형상하여 국제친선전람판 에 정중히 모실수 있도록 하여준 중국위 인랍상판 성원들이 이번에 위대한 확고한 자주적립장과 넓은 도량,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랍상을 최상의 비상한 정력으로 적극적인 대외활동 수준에서 형상한데 대하여 깊은 사의를

그는 위대한 장군님의 태양의 모습을 언제나 마음속깊이 간직 하고 장군님의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길이 빛내이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단결의 중심, 령도의 중심으로 높이 받들고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전통적 당과 혁명대오의 일심단결을 반석같이 다 것이다. 인 조중친선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져나가야 할것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우리는 절세의 크나큰 긍지와 자부 심을 안고 경애하는 김 정 은 동 지 께 서 올해신년사에서 제시 하신 전투적과업들을 빛나게 관철하여야

국제 친선 전 람 판의 전체 성원들은 전람관 에 랍상으로 정중히 모신 백두산위인들의 거룩하신 영상을 매일 뵈옵는 남다른 영예를 가슴깊이 새기고 국보 보존의 무거운 사명과 임무를 책임적으로 수 행하며 귀중한 선물들 을 통한 위대성선전과 교양사업을 계속 심화 시켜나가야 한다.

우리는 앞으로도 백두산절세위인들께서 마련해주신 전통적인 조중친선관계를 강화 발전시키기 위하여 모 든 노력을 다해나갈것 이다.

연설자는 우리 당과 혁명의 영원한 수령이 시며 백두산대국의 위대한 영상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우리 인민과 세계 진보적인 류의 마음속에 영생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높 이 받들고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과 주체 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싸 워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장묵뢰 중국위인랍상관 관장이 발언 하였다.

그는 위대한 정치가, 사상가, 군사가 이번에 중국위인랍상판 성원들이 이신 김정일동지께서 탁월한 령도로 조선

> 위해 공헌하신 김정일동지의 업적을 중국인민은 영원히 잊지 않을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는 오랜 력사와 전통을 가지고있는 중조 두 당, 두 나라 인민의 친선의 력사와 더불어 김정일동지께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영생하실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참가자들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랍상에 가장 경건한 마음으로 인사를 드린 다음 전시된 선물들을 깊은 감동속에 돌아 보았다.

민족의 대경사들로 뜻깊은 4월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랍상관이 개 관된것은 주체의 선군태양을 천세만세 높이 모시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사상의 힘,일심단결의 위력 으로 백승의 력사를 빛내여나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투쟁을 적극 고무추동할

【조선중앙통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게 된다고,이것은 곡절많은 는 나는 인민군군인들을 찾아 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가로놓인 업혹한 난국을 라개하고 조국을 수호하기 위하여 사생결단의 길, 험난 였다. 한 선군장정의 길을 걸으시 였습니다. »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낮이나 높은 뜻을 받들어 인민군대를 일군들의 눈앞에는 그이께서 선군길을 아무리 세월이 흘러 밤이나 수천수만리 전선길을 시찰하는것으로부터 선군혁명 헤치신 선군혁명천만리길이 파 도 잊지 않을것이라고 말씀

주름잡으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같은 헌신 의 세계는 날이 가고 세월이 흐를수록 천만 의 심금을 울린다.

몇해전 정월 어느날 위대한 를 믿고 그에 의거하여 혁명과 장군님께서는 백두밀림에서 개 척된 주체혁명위업, 선군혁명위 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하 기 위해 인민군대를 강화하는데 계속 큰 힘을 넣어야 한다고 키시기 위하여 외진 산중초소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인민군 있는 곳이라면 그 어디나 다 대는 선군혁명의 기둥이며 주 찾아가시고 군력을 강화하기 력군이라고, 인민군대만 강하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아낌없 면 세상이 열백번 변하고 천지 이 다 돌려주신데 대한 그이의 풍파가 닥쳐와도 두려울것이 없다고 하시면서 정권은 무너 였다. 지면 다시 세울수 있지만 군대 가 무너지면 모든것이 끝장나

국제사회주의운동력사가 보여 《장군님께서는 조국앞에 주는 철의 진리이라고 말씀하 시였다.일군들의 가슴가슴은 무한한 격정으로 끓어번지

> 이윽하여 위대한 장군님께서 말씀하시였다. 는 자신께서 어버이수령님의

건설을 이끌어오신데 대하여

인민군대를 수령님의 군대,

당의 군대로 더욱 강화발전시

와 섬초소 할것없이 군인들이

말씀은 일군들의 가슴을 울리

말씀하시였다.

령도를 시작하였으며 인민군대 도쳐왔다.

우리 나라의 령이란 령은 다 넘 었고 산이란 산은 거의다 올라 있어 천만의 심금을 그토록 울 가보았다,나의 한평생은 리는것이다. 군인들을 위한 한평생이라고

도에로의 배길을 비롯한 우리

강행군길, 삼복철강행군길은

위대한 선군령장의 력사의 강

찾고찾으시여 군인들에게 무적

행군길이였다.

잊지 못할 선군의 추억들을 하늘같은 믿음과 은정을 부어주 올랐다.

떠올리시며 위대한 장군님께서 시며 불패의 강국을 일뗘세워

뜨거운 격정에 넘쳐 한 일 말할수 있다라고 다시금 절절히 군은 위대한 장군님께 우리 인민군군인들과 인민들은 크나큰 감동에 넘쳐있는 장군님께서 헤쳐오신 준엄한 드리였다.

열렬한 사랑과 헌신으로 엮어져

보시며 위대한 장 군 님 께 서 는 자신께서는 앞으로도 변함없이 선군혁명령도의 상징 철령과 어버이수령님께서 열어주신 선군의 산악 오성산의 칼벼랑 선군의 한길을 억세게 걸어갈 길이며 위험천만한 판문점초소 것이라고, 그 길에 자신의 길과 파도가 기승을 부리는 초 인생의 락이 있고 가장 큰 행 복이 있다고 진정을 터놓으시

그를 정깊이 바라

장군님 헤치고헤치신 눈보라 였다. 애오라지 조국의 부강번영과 시작은 있어도 그 끝을 모르는 인민의 행복을 위해 선군혁명천 만리길을 쉬임없이 헤치시며 그 길에서 더없는 보람과 락을 뜻깊은 명절날에도 초소를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을 높이 모신 크나큰 영광과 행복에 일 의 담력과 용맹을 안겨주시고 군들의 가슴은 터질듯 부풀어

> 게 자신께서 선군혁명령도를 시 본사기자 김 인 선 지작하신 그날로부터 인민군부대

조선 민주주의 인 민 공화국 들에 대한 현지지도의 길을 끊 조국앞에 엄혹한 시련이 가로놓 후뎌워올랐다. 임없이 이어오고있는데 대하여

장군님께서는 오늘은 수령님께서 자신에게 국방위원회 위원장직을 넘겨주신 날이라고, 수령님께서 자신에게 국방위원회 위원장직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을 넘겨주신 때가 엊그제같은데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벌써 1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 《장군님께서는 위대한 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고는 깊은 감회에 잠기시여 영광스러

우면서도 시련에 찼던 지난날을 회고하시였다. 일군들은 숭엄한 감정에 휩싸 사명감을 가슴깊이 간직하시 이였다.

선군의 조국 우리 나라에서 국방위원회 위원장의 직책은 정 치, 군사, 경제의 총체를 지휘통솔 이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당 하고 나라의 방위력을 비롯한 전 반적국력을 강화하는 사업을 조직

> 장군님께서는 공화국의 국력강 화와 국가의 최고리익을 수호하 기 위한 투쟁에서 실로 거대한 업적을 이룩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

였던 시기에 독창적인 선군정치 로 인민군대를 무적필승의 최정 이렇게 서두를 뗴신 위대한 예혁명강군으로 더욱 강화발전시 키시고 국방공업발전에 선차적인 힘을 넣어 그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다져 강력한 군사력에 의

거하여 나라의 전반적국력을 새

로운 높이에 올려세우시였다.

장군님께서는 이 모든것은 수령님께서 혁명무력건설과 국방공업발전을 위한 투쟁에서 쌓으신 업적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다고 하시면서 불패의 혁명 무력과 튼튼한 국방공업은 수령님께서 자신에게 물려주신 유산중의 유산이며 그것은 오늘 우리가 강위력한 혁명무력을 건 설하고 선군정치를 펴나가는데 서 귀중한 밑천으로 되고있다고 말씀하시였다.

하늘에 닿은 우리 조국의 존엄과 국력을 어버이수령님의 업적으로 높이 칭송하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도덕

국방위원회 위원장,

성스러운 그 부름을 되새기느 이야기하시였다. 라면 어버이수령님께서 유산으 로 물려주신 우리 조국을 불패 의 사회주의보루로 굳건히 다지 신 위대한 장군님의 업적이 숭엄히 안겨온다.

수령님께서 불러주신 조국의 운명, 수령님께서 맡기고 가신 인민의 운명을 자신이 책임졌다는 숭고한 자각과

였습니다. 》 주체 9 7 (2 0 0 8)년 4 월 9일이였다.

을 하시였다.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자리 를 같이하시고 우리 혁명무력의 령도하는 국가의 최고직책이다. 그 중임을 맡아안으신 위대한 강화발전과 선군혁명위업완성 과 관련한 참으로 뜻깊은 말씀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군들에

의리의 세계에 일군들의 가슴은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군들 에게 우리의 혁명적무장력은 공화국의 자주권과 존엄을 건드 리려는 적들의 그 어떤 시도도 무자비하게 짓부셔버릴것이며 우리 조국은 불패의 사회주의보 루로 그 위용을 높이 펼쳐갈것 이라고 하시면서 수령님의 유훈 크나큰 감동에 넘쳐있는 대로 언제나 군사력을 강화하는 일군들을 둘러보시며 위대한 데 힘을 넣어 총대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을 총대로 끝까지 완성해나갈것이라는 굳은 결심 을 피력하시였다.

>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날 의 숭고한 뜻을 간직하시고 어버이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혁명위업을 완성하기 위한 길에 자신의 모든것을 깡그리 바치시였다.

> 우리 조국을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의 지위에 당당히 올려 세워주시고 후손만대의 번영을 위한 확고한 토대를 마련해주신 절세의 애국자 김정일장군님의 업적은 강성번영하는 태양민족의 력사와 더불어 길이 빛날것이다.

본사기자 림정호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영원한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선군조선의 높이 모시고 무궁한 강성번영을 이룩해나가자

중앙보고대회에서 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총리인 박봉주동지의 보고

오늘 우리는 온 나라 전체 군대와 인민이 승리의 신심드높이 강성국가 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비약의 불바 람을 일으켜나가고있는 격동적인 시 기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mark>추</mark>대되신 21돐을 성대히 경축하고있습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주체 82(1993)년 4월 9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신것은 조국의 부강번영 과 주체혁명위업수행에서 획기적의 의를 가지는 력사적사변이였습니다.

선군조선의 승리적전진과 더불어 길이 빛날 이 대경사에 의하여 우리 조국은 사회주의강국의 존엄과 위용 을 떨치며 광명한 미래에로 힘차게 비약할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가지 게 되였습니다.

지금 우리 군대와 인민은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선군령도밑에 전진 하며 승리하여온 공화국의 자랑찬 력사를 돌이켜보면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김일성, 김정일조선의 일대 전성기를 펼쳐나갈 불타는 결의에 넘쳐있습

이 뜻깊은 자리에서 전체 인민군 장병들과 인민들의 다함없는 경모의 마음을 담아 주체의 영원한 태양이 시며 백두산대국의 빛나는 영상이신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께 가장 숭고 한 경의와 영원무궁한 영광을 드립 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는 강성번영하 는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 국의 영원한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십 니다.

사회주의위업수행의 중대한 력사 적전환의 시기에 국방위원회 위원장 으로 높이 추대되신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혁명과 건설의 모 든 중하를 한몸에 지니시고 탁월한 사상과 령도,초인간적인 정력으로 선군조선을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오 시였습니다.

치렬한 반제반미대결전과 사회주 의수호전에서 이룩된 모든 승리와 세상을 놀래우며 다계단으로 일어난 민족사적사변들, 인민의 세기적숙망 이 찬란히 꽃펴난 위대한 현실은 어버이장군님의 성스러운 존함과 뗼 수 없이 직결되여있습니다.

이 력사의 나날에 공화국의 영예 와 존엄, 무진막강한 국력을 상징하 고 대표하는 국방위원회 위원장의 직함은 혁명하는 인민에게 신심을 안겨주고 반제자주의 시대적흐름을 힘있게 추동하는 승리의 표대로 되 였습니다.

선군혁명의 걸출한 령도자, 자주와 정의의 위대한 수호자로서의 어버이장군님의 절대적권위는 오늘 도 변함이 없고 앞으로도 영원할것 입니다.

군대와 인민이 위대한 우리 김정일동지를 공화국의 영원한 국방 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우러러받드 는것은 사회주의강성국가의 튼튼한 기틀을 마련하신 민족의 어버이에 대한 열렬한 흠모와 끝없는 충정의 발현입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는 주체사상, 선 군사상에 기초하여 사회주의국가발 전의 새로운 길을 열어놓으신 걸출 한 정치가이십니다.

주체혁명의 새시대, 선군시대는 사 회주의강성국가건설을 변화된 정세 에 맞게 새로운 높이에서 진행해나 갈것을 요구하였으며 이 력사적과제 는 위대한 김정일동지에 의하여 빛 나게 해결되였습니다.

평안북도의 신의주시직매점

에서 8월3일인민소비품전시

도안의 시, 군의 직매점,

가내작업반관리소들에서 출

품된 갖가지 인민소비품들이

-참가자들과 참관자들의 관심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1980년대처럼

운동을 활발히 벌려 갖가 **시**지 직접은 소비품들을 더

많이 생산하도록 하여야 🔾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8월3일인민소비품생산

지 질좋은 소비품들을 더

도당위원회의 지도밑에

도 인 민 위 원 회 에 서 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전국

경공업대회에서 강령적인

결론을 하신 1 돐을 맞으며

모든 시, 군의 직매점, 가내

작업반관리소들에서 질좋은

8월3일인민소비품을 더

많이 생산하도록 적극 추동

하기 위해 전시회를 조직하

특히 도인민위원회에서는

8월3일인민소비품생산운동발

단 30돐이 되는 뜻깊은 올해

이러한 전시회를 여러차례 진행

회가 진행되였다.

을 모았다.

합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인민대중의

북

도

M

하기로 하였다.

자주적요구와 리익을 실현하기 위한 사회주의정치는 군사를 중시하고 앞 세우는 위력한 정치로 되여야 한다 는것을 천명하시고 선군정치를 사회 주의기본정치방식으로 정립하시였으 며 그 실현에서 나서는 리론실천적 문제들을 환히 밝혀주시였습니다.

선군정치는 주체의 사상과 리론, 령도방법과 령도예술을 전면적으로 구 현하고 집대성한 가장 포괄적이고 심

원한 정치방식이며 전략전술입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헌법을 새롭게 보충완성하 고 국방위원회를 중추로 하는 국가 기구체계를 세우도록 하시여 선군의 기치밑에 혁명과 건설을 승리적으로 전진시키기 위한 강력한 주권적담보 를 마련하시였습니다.



인류정치사에는 수많은 류형의 국 가정권이 존재하였지만 우리 공화국 과 같이 나라의 자주권과 인민의 리 상을 빛나게 실현할수 있는 독창적인 선군정치방식과 국방중시의 국가기구 체계를 확립한 정권은 없었습니다.

바로 이것으로 하여 우리 공화국 이 적대세력들의 악랄하고 끈질긴 도전과 압살책동을 짓부시고 끊임없 이 승승장구해나가는 위력하고 생활 력있는 정권으로, 인민의 운명을 지 켜주고 꽃피워주는 가장 인민적이며 애국적인 정권으로 빛나는것입니다.

위대한 선군령장의 천리혜안의 정 치경륜과 숭고한 애국, 애족, 애민의 뜻이 구현되여있는 우리 식의 정치 방식과 국가기구체계는 그 우월성과 위력을 높이 떨치며 강성국가건설의 백승을 확고히 담보할것입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는 나라와 민족 의 존엄과 자주권을 굳건히 수호하 시고 사회주의조선을 온 세상에 빛 내여주신 절세의 애국자이십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국방위원회 위원장의 중책을 지니시고 우리 혁 명을 이끌어오신 나날은 조국력사에 일찌기 없었던 엄혹한 시련의 시기

자주적인 삶이냐, 노예의 운명이냐 하는 생사존망의 갈림길에서 선군의 보검을 높이 드시고 반제반미대결전의 최전연에 서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백두산악과도 같은 억척의 신념과 배짱, 령활한 지략과 과감한 공격전 으로 제국주의련합세력의 온갖 도전 과 침략책동을 맞받아 짓뭉개버리시 며 조국과 혁명을 승리에로 령도하 시였습니다.

한차례의 세계대전과 맞먹는 사회 주의수호전을 련전련승에로 이끄시 여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두번다시 구원하신것은 우리 장군님께서만이 이룩하실수 있는 력사의 기적이며 반제반미투쟁사에 찬연히 아로새겨 질 업적중의 업적입니다.

나라의 안전과 인민의 행복을 지 켜 한몸의 위험도, 사나운 눈보라도 가리심없이 조국수호의 전초선들을 찾아 험난한 선군장정의 길을 이어 가시던 어버이장군님의 거룩하신 영상은 철령과 오성산, 초도와 야전

솜옷을 비롯하여 불러만 보아도 눈 굽이 뜨겁게 젖어드는 시대어들과 더불어 우리 군대와 인민의 심장속 에 영원히 간직될것입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국가건 설과 활동에서 자주적대를 확고히 세우고 혁명과 건설에서 우리 식, 주 체식을 철저히 구현해나가도록 이끄 시여 사회주의조선의 위용을 만방에 빛내이시였습니다.

오직 우리 인민의 무궁무진한 힘 을 믿고 주체적혁명로선을 끝까지 견지해나가신 위대한 장군님의 자주 정치가 있었기에 우리 공화국은 전 례없는 대정치풍파와 심각한 경제위 기가 세계를 휩쓰는 속에서도 나라 의 정치적안정을 확고히 보장하고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거창 한 전변을 이룩할수 있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대외관계에 서 언제나 자주의 원칙을 철저히 구 현하도록 하시였으며 우리 혁명과 부 강조국건설에 유리한 국제적환경을 마련하고 국제적정의와 세계의 평화 와 안전을 수호하시기 위하여 정력적 인 대외활동을 벌리시였습니다.

비범한 예지와 투철한 자주의 신념, 능숙한 외교지략을 지니신 희세의 정치거장을 모시여 우리에 대한 지지성원의 목소리는 어디서나 울려퍼지고 나라가 어려운 시련을 겪고있던 시기에도 대외관계가 폭넓 게 확대발전되였으며 공화국의 선군 의지와 필승의 힘은 세계를 진감시 키고 진보적인민들의 커다란 지지와 공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장군님의 나라, 사회주의의 붉은 성 새로 높이 솟아 불패의 위용을 떨쳐 갈것입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는 선군조선의 강한 국력을 마련하신 백두산대국의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지켜주시

고 빛내여주신 주체조선은 영원한

건설자이십니다. 나라의 국력은 정치와 군사,경 제, 문화 등 국가건설과 활동전반을 지휘통솔하는 령도자의 정치실력에

달려있습니다. 영광스러운 김정일시대는 우리 조국이 외세의 침략과 간섭의 력사 에 영원히 종지부를 찍은 강성의 시 대로, 지정학적인 숙명론을 타파하고 세계적인 강국으로 우뚝 솟아오른 영광의 시대로 빛나고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심단결을 혁명의 천하지대본으로 내세우시고 수령을 중심으로 하는 당과 군대와 인민의 일심단결을 확고히 실현하도 록 하시여 혁명의 주체를 비상히 강 화하시고 공화국의 정치사상적위력 을 백방으로 다지시였습니다.

령도자의 두리에 천만군민이 한마 음한뜻으로 굳게 뭉쳐 생사운명을 함께 하는 불패의 혼연일체, 령도자 의 부름에 한사람같이 떨쳐나 산도 허물고 바다도 메우는 결사옹위, 결 사관철의 대부대를 키우시여 우리 나라를 정치사상강국으로 전변시키 신것은 어버이장군님께서 이룩하신 가장 큰 업적입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선군시대 군건설의 강령적지침을 뚜렷이 밝혀 주시고 혁명무력의 강화발전에 선차 적인 힘을 넣으시여 우리 군대를 수령결사용위의 전위대오로, 최정예 의 백두산혁명강군으로 억세게 키우 시였습니다.

투철한 선군의 의지로 군력강화에 모든 힘을 집중하도록 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밑에 어버이수령님께서 마련하신 자립적국방공업이 첨단과 학기술의 토대우에 올라서고 우리 나라는 그 어떤 대적도 단매에 짓부 셔버릴수 있는 자위적전쟁억제력을

가지게 되였습니다.

적들이 원자탄으로 우리를 위협 공갈하던 시대를 끝장내시고 우리 민족이 맑고 푸른 하늘아래서 대대 손손 번영할수 있는 세계적인 군사 강국을 일떠세워주신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의 불멸의 업적을 우리 인민은 영원히 잊지 않을것입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우리 조 국이 사회주의경제강국에로 비약해나 가는 밝은 앞길을 열어주시였습니다. 고난의 행군, 강행군의 엄혹한 시

기에 강성국가건설의 응대한 설계도 를 펼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불철주야의 현지지도로 온 나라에 혁명적군인정신, 강계정신이 나래치 고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의 봉화, 최 첨단돌파전의 불길이 련이어 타오르 게 하시였습니다.

오늘을 위한 오늘에 살지 말고 래 일을 위한 오늘에 살자는 혁명적 인생판을 지니시고 부강한 조국의 래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신 어버이장군님의 애국헌신의 로고에 의하여 우리 식 CNC공업화가 개척 되고 새 세기 산업혁명이 일어났으 며 과학기술강국, 지식경제강국건설 의 진군로가 열려지게 되였습니다.

제국주의반동들의 집요한 봉쇄책 동을 짓부시며 자체의 힘과 기술로 만든 인공지구위성이 우주에 날아오 르고 주체적인 생산체계들이 확립되 였으며 현대화된 생산기지들이 수많 이 일떠서고 국토건설과 문화건설을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비약적인 발 전이 이룩되였습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조국통 일을 민족지상의 애국위업으로 내세 우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정력적 으로 이끄시여 우리 민족끼리의 리 념밑에 전진하는 6.15통일시대를 열어놓으시였으며 나라의 자주적통 일과 평화번영을 위한 튼튼한 토대 를 마련해주시였습니다.

나라의 존엄과 국력을 민족사에 일찌기 없었던 가장 높은 경지에 올려세워주시고 김일성민족의 우수 성을 세계만방에 떨쳐주신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혁명업적은 조국청사 에 영원불멸할것입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선군시대 국가건설사상과 위업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에 의하여 빛나게 계승발 전되고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는 백두의 대업을 굳건히 이으시며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조선을 끝없이 빛내여

나가시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십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수령 영생위업실현의 새로운 장을 펼치시고 천만군민이 위대한 장군님을 공화국의 영원한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받들어모시며 어버이장군님의 강성국 가건설사상과 위업을 드림없이 실현해 나가도록 현명하게 이끌고계십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마련하시고 구현하여오신 선군정치방식과 국방중 시의 국가관리체계를 확고히 계승해 나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에 의하여 공화국의 정치군사적 위력은 날로 더욱 강화되고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밑에 인공지구위성 《광명성-3》호 2호기 의 성공적발사를 비롯한 민족사적대 승리들이 런이어 이룩됨으로써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애국유산이 끝없이 빛나고 공화국의 지위가 비상히 높아 졌으며 세계정치구도와 력량관계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혁명 의 최전방에 서시여 미제와 그 추종 세력들의 무분별한 도발책동을 단호 히 제압분쇄하시고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굳건히 지켜주시였으며 천만군민을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 관철에로 힘있게 이끄시여 사회주의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획기적전환이 일어나게 하시였습니다.

주체혁명의 백년대계의 전략과 새로운 병진로선을 비롯한 강령적 지침들을 제시하시고 김정일애국주의 열풍, 《마식령속도》 창조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키시며 강성국가건설총 진군을 진두에서 정력적으로 이끌어 나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에 의하여 태양민족의 억센 기 상이 하늘에 닿고 인민의 꿈과 리상 이 현실로 꽃피는 백두산대국의 전 성기가 펼쳐지고있습니다.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로 위대한 계승과 창조의 새시대를 열어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높이 모시여 우리 조국의 력사는 백두의 혈맥 으로 도도히 흐를것이며 위대한 김정일동지는 우리 인민과 진보적인류 의 마음속에 영원한 국방위원회 위원장 으로 천세만세 영생하실것입니다. 동지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 주체의 사회주의강성국가를 일뗘세우기 위한 우리 인민의 력사 적위업은 오늘 새로운 높은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우리는 위대한 장군님을 우리 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모시고 장군님의 혁명생애와 불멸의 혁명업적을 길이 빛내여나 가야 합니다.》라고 말씀하시였습

우리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사회주의조선을 수호하시고 불패의 강국으로 일떠세 워주신 고귀한 혁명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며 대를 이어 계승발전시 켜나가야 합니다.

국가건설과 국가활동의 모든 사업 을 철두철미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념원대로, 어버이장군님식대 로 해나가야 하겠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세대가 바뀌여도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일관하게 견지하여오신 자주의 원칙, 선군의 원칙, 사회주의원칙을 강성국가건설 의 영원한 지도적지침으로 확고히 틀어쥐고 철저히 구현하며 어버이장군님의 애국애민의 뜻이 어 려있는 공화국의 우월한 국가사회제 도와 인민적시책들을 더욱 빛내여나 가야 하겠습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고난의 눈보라, 시련의 가시덤불길을 헤치시 며 하나하나 마련해주신 부강조국의 만년토대를 더욱 튼튼히 다지고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어버이장군님의 유훈을 무조건 끝까지 관철해나가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충직하게 받드는것은 어버이장군님의 혁명위업을 빛나게 완성하기 위한 결정적담보입니다.

전체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은 수령결사용위의 신념의 노래 《혁명 무력은 원수님 령도만 받든다》, 《우리는 당신밖에 모른다》를 높이 부르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두리 에 팔을 끼고 어깨를 겯고 철통같이 뭉쳐 백두의 행군길을 꿋꿋이 이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당의 유일적령도체계를 더욱 철저 히 세우고 국방위원회의 명령지시를 무조건 접수하고 제때에 어김없이 집행하는 강한 혁명적질서와 규률을 확립하며 우리 식의 국가관리체계의 우월성과 위력을 높이 발양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 당의 선군혁명로선을 튼튼히 틀어쥐고 나라의 군사력을 백방으로 강화하여야 하겠습니다.

혁명의 기둥이며 주력군인 인민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대를 금수산태양궁전과 당중앙위원 회를 결사옹위하는 사상과 신념의 강군으로, 수령의 위업을 총대로 굳 건히 담보하는 억척의 지지점으로 더욱 튼튼히 준비시키며 자위적국방 공업의 위력을 끊임없이 높이고 온 나라를 난공불락의 요새로 다져나가 야 하겠습니다.

김정일애국주의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물 려주신 고귀한 정신적유산이며 공화 국의 영원한 번영의 원동력입니다.

전체 군대와 인민이 뜨거운 애국 의 열과 정으로 한생을 불태우신 어버이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심장깊 이 새기고 더욱 힘차게 떨쳐나 우리 조국을 하루빨리 경제강국, 문명강국 으로 전변시키며 이 땅우에 사회주 의부귀영화의 대번영기를 보란듯이 펼쳐나가야 하겠습니다.

혁명적사상공세를 힘있게 벌려 우 리의 전진을 방해하는 패배주의를 불사르고 비약의 열풍을 세차게 일 으키며 경제전반을 활성화하고 인민 생활향상에서 결정적전환을 가져와 야 하겠습니다.

군민대단결, 군민협동작전의 위력 으로 나라의 전반적면모를 사회주의 강성국가의 체모에 맞게 훌륭히 전변 시키며 마식령군인건설자들의 결사 판철의 정신, 기적창조의 투쟁기풍으로 김정은시대의 기념비적창조물들을 더 많이 일떠세워야 하겠습니다.

일군들은 어버이장군님의 숭고한 인민관을 따라배워 언제나 인민을 위하여 헌신하는 인민의 충복으로 살며 일해나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선군의 기치 높이 미제의 반공화국대결책동과 전 쟁도발소동을 단호히 짓부시고 자주 의 원칙과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밑 에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기어이 성취할것이며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전, 인류자주위업을 위하여 적극 투쟁해나갈것입니다.

불멸의 태양기를 휘날리며 위대한 당이 펼친 강성국가건설승리의 시간표 따라 신심드높이 비약해나가는 공화국 의 앞길은 끝없이 밝고 창창합니다.

모두다 위대한 김정은동지를 수반 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의 두리에 굳게 뭉쳐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더 욱 힘차게 싸워나아갑시다.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 만세! 우리 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 이며 향도자인 영광스러운 조선로동 당 만세!



1 576점의 갖가지 소비품들 을 출품시킨 신의주시가 1 등으로 평가되였다.

특히 신의주시직매점 리용 생산반에서는 107종에 274점의 질좋은 인민소비 품들을 출품시켜 높은 평가 를 받았다. 정주시의 가내작업반관리 소아래 가내작업반들에서는

이번 전시회에서는 608종에

5 0 종에 1 6 4 점의 각종 손가방과 일용잡화들을 출 품시켜 참가자들과 참판자 들의 호평을 받았다. 이밖에도 구성시와 태천, 동림, 선천, 운전군을 비롯한 다른 시, 군들에서도 유휴자

재를 적극 리용하고 자기 지 방의 특성을 살린 갖가지 인 민소비품들을 만들어 출품시 켰다. 전시회에 참가한 일군들과

참가자들은 서로의 좋은 경 험을 나누고 질좋은 제품들 도 교환하면서 앞으로 더 좋 은 인민소비품을 생산하여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할 결의 들을 가다듬었다.

특파기자 송 창 윤

오늘은 어버이수령님께서 주체43(1954)년 4월 9일 자강도 전천군 두메산골의 자그 마한 상점을 찾으신 날이다. 그때로부터 어느덧 60년이

라는 세월이 흘렀다. 창립 60 돐을 맞는 전천군상업관리소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지금 사회 주의상업의 본질과 상업봉사활 동에서 나서는 과업과 방도를 환히 밝혀주시던 절세위인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다시금 가슴 뜨겁게 돌이켜보고있다. 위 대 한 형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당은 우리 인민의

운명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그 들에게 보다 유족하고 분명한 생활을 마련해주기 위하여 투 쟁하는 당입니다.》 미제침략자들을 때려부신 이 땅에서 온 나라 인민이 재더미

를 털고 일떠서던 주체43(19 54)년 4월 9일이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두메산 골인 전천군을 현지지도하시는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몸소 전천련합직장상점(당시)을 찾으

이날 상점의 실태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상품들에 가격을

시였다.

3중3대혁명붉은기 전천군상업관리소의 60년연혁사를 돌이켜보며 다 써붙여야 한다고, 신발은 문 수별로 남자것과 녀자것, 아이

것과 어른것, 큰것과 작은것으 로 갈라 진렬해놓고 팔아야 한 다고 하나하나 일깨워주시였 다. 그러시면서 상점일군들은 인민들이 많이 요구하는 상품들 을 제때에 받아다 팔아주어야 한다고 간곡히 가르쳐주시였다. 전쟁이 끝난지 아홉달 이날 전천공업품상점을 찾으

못되는 때에 전천군의 자그마한 상점을 돌아보시며 하신 어버이수령님의 그날의 말씀은 우리 상업봉사자들에게 인민적 상업의 성격, 임무가 무엇인가 를 하나하나 깨우쳐주신 귀중한 가르치심으로서 오늘도 우리 나 라 사회주의상업의 강령적지침 으로 빛을 뿌리고있다. 주체47 (1958) 년 8월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전천군의 상점들을 또다시 찾으시고 상점 일군들이 상점을 더 잘 꾸리고 봉사성을 높여 나비가 꽃을 찾 아오듯이 많은 사람들이 상점을 찾아오게 하여야 한다고 따뜻이 일깨워주시며 상업봉사활동에 서 나서는 방향과 방도들을 환히 밝혀주시였다. 어버이수령님의 령도의 자욱은 그후에도 계속되

전천군상업관리소 일군들과 봉사자들은 오늘도 위대한 수령님께 커다란 기쁨을 드렸던 주체 5 3 (1964) 년 4월 24일을 영원히 잊지 못해하고

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우리 가정수첩》을 만들어놓고 주민 들의 살림살이를 제 집일처럼 돌보고있는 나어린 판매원인 정 춘실동무의 소행을 두고 대단 히 만족해하시였다.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담당한 세대들의 식구수며 주민들의 신발문수, 요구하는 상품, 결혼식날, 생일 까지 구체적으로 적어놓고 그들 의 요구에 맞게 봉사활동을 하 고있는 그의 모범을 상업부문에 서 적극 일반화하도록 은정깊은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진정 어버이수령님의 다심하 신 손길이 있어 온 나라 상업부 문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인민의 충복으로서의 값높은 삶을 빛내 일수 있게 되였다. 인민의 충복,그 영예로운

부름과 더불어 전천군상업 관리소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령도 업적을 더 높은 사업성과로 받 들어갈 불타는 마음을 안고 지 혜와 열정을 다 바쳐 일해왔다. 하지만 바치는 충정보다 베푸 시는 사랑과 은정은 언제나 뜨

거웠다. 주체 8 0 (1991) 년 9월 26일 전천공업품상점을 또다시 찾아주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여러 매대의 상품들을 보시고 만족하시여 주민들에게 더 많은 상품을 공급하기 위해 아글타글 애써온 이곳 상업관리소 종업원 들모두가 혁신자라고 하시며 그 들과 함께 영광의 기념사진을 찍어주시였다.

모두가 혁신자, 오늘도 이곳 일군들과 봉사자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그날의 값높은 믿음을 가슴깊이 되새기며 상업관리소 에 깃들어있는 절세위인들의 거룩한 령도의 자욱자욱을 목메 여 이야기하고있다.

지금으로부터 56년전 어버이수령님을 모시고 전천군 의 상점들을 찾으신 때로부터 여 러차례 자기들의 일터를 찾아 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뜨겁게 되새길 때마 다 이곳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주체 9 6 (2 0 0 7)년 8 월 3 1일 장군님께서 남기신 간곡

한 당부를 가슴깊이 되새겨보군 한다. 그날 선군혁명령도의 그 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전천공업 품상점을 찾아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상업관리소의 사업정형을 구체적으로 알아보 시고 사회주의본태가 살아있다 고 기뻐하시며 지난날과 마찬가 지로 앞으로도 인민을 위해 좋 은 일을 더 많이 하기 바란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현명한 령도와 은혜로운 손길이래 전천군 상업관리소는 지난 6 0년간 참으 로 놀라운 발전을 이룩하였다. 오늘 상업관리소는 4층으로

된 전천공업품상점을 비롯한 수 십개의 상점들과 2천여m²에 달 하는 상품보관창고, 수백t능력의

지하랭동고, 수십정보의 원료기 지, 천수백 m²의 축산기지 그리 고 륜전기재들과 식료가공설비 들을 그쯘히 갖춘 군인민생활향 상의 위력한 상업봉사기지로 변 모되였다. 상업관리소는 해마다 많은 식료가공품을 비롯한 인민 소비품을 자체로 마련하며 맡겨 진 인민경제계획을 넘쳐 수행하 였다. 그 나날 상업관리소의 상 품류통액은 비약적으로 늘어나 군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 에 크게 이바지하고있다.

영예의 김일성훈장을 수여받은 3중3대혁명붉은기 전천군상업관리소는 절세위인들 의 현명한 령도아래 60년의 자랑찬 행로에 김일성훈장수훈 자, 2중로력영웅, 공훈판매원 들을 비롯하여 수많은 국가수훈 자들과 인민의 참된 봉사자들을 배출하였다.

오늘 상업관리소의 전체 일군들 과 종업원들은 어버이수령님께서 자기들의 일터에 불멸의 첫 자욱 을 남기신 60년전의 그날을 상업관리소의 창립일로 하도록 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 다함 없는 감사를 드리며 더 높은 사 업성과로 당의 인민사랑의 뜻을 활짝 꽃피워갈 불타는 맹세를 다지고있다.

특파기자 동세 웅

위 대 한 령 도 자 김 정 일 동 지 께 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신 21돐경축

전국직맹일군들과 직맹원들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 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신 21돐경축 전국직맹일군들과 직맹 원들의 웅변대회 《위대한 태양의 뜻을 받들어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가 7일 중앙로동자회관 에서 진행되였다.

현상주 직총중앙위원회 위원장, 직맹일군들, 로동계급과 직맹원 들이 웅변대회에 참가하였다.

웅변대회장은 한평생 선군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김일성민족의 존엄과 강성번영을 위하여 불철 주야 헌신과 로고를 바치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과 다함없는 경모의 정으로 세차게 끓어번지고있었다.

《위대한 장군님은 영원한 우리 의 국방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제목의 웅변에서 평양역초급직맹 위원장 남춘빈은 탁월한 사상과 정력적인 령도로 조국과 인민앞 에 쌓아올리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높이 칭송하고 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 로동당 제1비서, 조선민주주의인 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으로 높이 추대되신 2돐에 즈음한 녀맹일군들과 녀맹원들의 경축 모임이 8일 녀성회관에서 진행되

김진하 평양시당위원회 비서 녀맹일군들과 평양시안의 녀맸원

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모임에서는 김정순 녀맹중앙위 원회 위원장의 보고에 이어 보통 강구역녀맹위원장 송양란, 중구 역 동성동초급녀맹위원장 채선

땅우에 불패의 정치군사강국을 일떠세우시고 주체혁명위업의 만년토대를 마련하여주신 어버이장군님은 우리 공화국의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인민의 마음속에 영생하실것이라고 격조 높이 웨치였다.

만경대혁명사적관 직맹직외해 설강사 원경옥은 웅변 《위대한 헌신》에서 일찌기 민족수난의 시기에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구원하시려 혁명의 길에 나서신 때로부터 장구한 기간 전인미답 의 길을 헤치시며 이 땅우에 륭 성과 번영의 새시대를 펼쳐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애국헌신의 력사를 감명깊게 이야기하였다.

《그리움》. 《나는 선군조선의 공민이다》라는 제목으로 출연한 대동강유원지관리소 직맹직외해 설강사 김영심,대외건설지도국 직맹이동해설강사 신경숙의 웅변 은 위대한 장군님을 끝없이 그리는 우리 인민의 마음을 그대 로 담은것으로 하여 참가자들을 감동시켰다.

어버이수령님을 너무도 뜻밖에 잃은 피눈물의 언덕에서 우리 군대와 인민을 불러일으키시여 력사상 처음으로 수령영생위업을 빛나게 실현하시고 사회주의조국 을 수호하신 위대한 장군님.

참가자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끊임없이 걷고걸으신 선군길에서 주체조선의 자위적군사력과 자립 적민족경제의 토대가 더욱 튼튼 히 다져지고 민족만대의 번영을 위한 확고한 담보가 마련되였음을 다시금 절감하였다.

와우도구역출판물보급소 직맹 초급단체부위원장 리숙연은 웅변 《그이 없인 못살아》에서 위대한 장군님께서 뿌려놓으신 만복의 씨앗들을 알찬 열매로 가꾸어 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위인적풍모에 대하여 감동깊게 이야기하였다.

인민의 리익을 최우선, 절대시 하시고 사랑과 정으로 온 나라 어린이들과 인민들을 뜨겁게

보살피시며 인민존중, 인민사랑 가 법적으로 담보된 주체의 사회 의 위대한 서사시를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품은 우리모 두가 안겨사는 행복의 요람이라

고 격정을 터치는 웅변은 참가자

웅변대회 진행

들의 심금을 뜨겁게 울려주었다. 만경대구역출판물보급소 직맹 초급단체위원장 박성순, 류경건 설지도국 자재상사 직맹통신원 장철훈은 웅변 《비약의 불바람》, 《최후승리의 포성》에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험한 마식령스키장 건설장 등 온 나라 방방곡곡을 찾으시며 비약의 불바람을 일으켜

경애하는 원수님의 정력적인 령도밑에 약동하는 젊음으로 비 약하는 이 땅에 대기념비적창조 물들이 수많이 일떠서고 건설의 최전성기가 펼쳐졌다고 그들은 말하였다.

주신데 대하여 말하였다.

우리 공화국이 외세의 온갖 침 략과 간섭을 받아온 수난의 력사 에 영원히 종지부를 찍고 자주적 이고 정의로운 핵보유국의 지위

주의정치군사강국으로 온 세상에 빛을 뿌리고있는데 대하여 최고 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산하단위 직맹원 리경옥은 웅변《법과 핵》 에서 긍지높이 언급하였다.

남흥청년화학련합기업소 직맹 이동해설강사 김은정은 《우리는 당신밖에 모른다》라는 제목의 웅변에서 온 나라 천만군민이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개척하시 고 빛내여오신 백두의 대업을 실현 해나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따라 자주와 선군, 사회주의의 길을 따라 곧바로 나가고있는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장내에 《우리는 당신밖에 모른다》의 노래가 힘있게 울려 퍼지는 속에 참가자들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을 우리 당과 혁명 의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모시고 선군태양의 뜻을 받들어 주체혁 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갈 불타는 결의를 더욱 굳게 가다듬 었다.

령도따라 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비약의 불바람 을 더욱 세차게 일으켜 선군조선 의 번영기를 열어나갈데 대하여

군민대단결의 기치높이 인민군 대를 적극 원호하며 제국주의자 들의 사상문화적침투책동을 단호 히 짓부시고 우리의 사상과 제도 를 굳건히 고수해나가야 할것이

였다.

제 1 6 차 김 일 성 화 축 전

나 왔 다 선 전 화 가



뜻깊은 태양절을 맞으며 혁명 의 수도 평양에서 진행되는 제16차 김일성화축전 선전화가

주체의 영원한 태양이시며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천세만세 높이 받들어모시려는 만민의 한결같은 념원이 반영된 선전화에는 노을빛 으로 물든 하늘을 배경으로 꽃들이 만발한 만경대고향집과 아름답게 피여난 불멸의 꽃 김일성화가 형상되여있다.

선전화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태양절》, 《제16차 김일성화축전》이라는 글발이 새겨 져있으며 축전마크와 장소, 기간이 반영되여있다.

선전화는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우리 인민과 진보적인류의 다함 없는 흠모심에 떠받들려 성황리에 열릴 위인칭송, 영생축원의 꽃축전 을 훌륭히 장식하는데 이바지하게 될것이다.

군들과 녀 맹 원 들 의

희, 서성구역 하신동 녀맹원 김명 희가 토론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천만군민 이 당의 령도따라 강성국가건설 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비약의 불바람을 일으켜나가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제1비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으로 높이 가로 일떠세우시려는 경애하는 추대되신 2돐을 성대히 경축하고 있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리 당과 국가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심으 로써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개 척하시고 이끌어오신 주체혁명, 선군혁명의 명맥이 굳건히 이어 지고 김일성, 김정일조선의 백승

> 확고히 담보 되게 되였 다고 말하 였다.지난 2 년 간 은 절세위인들 의 불멸의 적 대를 이어 빛내이며 당과 혁명 대오의 일 심단결을 백방으로

> > 강화하여

우리 조국

사회주

의 미래가

원수님의 철의 신념과 의지. 비범한 령도력이 뚜렷이 과시된 나날이였다고 강조하였다.

우리 인민들과 녀성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천출위인상과 세련된 령도, 고매한 인덕을 절감 하면서 원수님의 령도따라 힘차 게 전진하는 우리의 앞길을 막을 자 이 세상에 없으며 우리의 성 스러운 위업은 필승불패이라는 진리를 더욱 굳게 확신하였다고 말하였다.

참으로 희세의 정치가이시며 불세출의 선군령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우리 혁명의 진두 에 높이 모신것은 우리의 크나큰 행운이고 자랑이며 최대의 영광 이라고 강조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온 나라 전체 녀성들과 녀맹원들의 한결 같은 마음을 담아 주체혁명위업. 강성국가건설위업을 승리에로 이끄시며 백두산대국의 존엄과 위용을 만방에 떨치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최대의 영예와 가장 뜨거운 감사를 드리였다.

강조하였다.

그 어떤 천지풍파속에서도 천겹만겹의 성새, 방패가 되여 경애하는 원수님을 결사옹위하며 당의 령도따라 주체혁명의 한길로 억세게 나가야 할것이라고 언급 하였다.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여러가지 대중운동과 좋은 일하기운동을 더욱 활발히 벌려 이 땅우에 인민의 아름다운 리상과 꿈이 현실로 꽃퍼나는 천하제일강국을 일뗘세우는데 적극 이바지해나갈데 대하여 말 하였다.

라고 말하였다. 녀성동맹안에 경애하는 원수님 의 유일적령도체계를 더욱 철저 히 세우고 조직의 전투적기능과 역할을 높이며 사상전의 된바람 을 일으켜 전동맹을 당의 사상관 철전, 당정책용위전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킬데 대하여 언급하

화 태양절경축 영화상영주간

심오한 사상리론활동과 거창한

혁명실천으로 주체조선의 새

기원을 열어놓으시고 우리 인민

의 혁명투쟁사와 인류해방투쟁

사에 영원히 빛날 업적을 쌓아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뛰여난 선견지명으로 주체혁명

위업완성의 근본문제인 령도

의 계승문제를 빛나게 해결하

시여 우리 인민에게 세기와

세대를 이어 수령복, 장군복,

최고사령관복을 안겨주신것

은 조국과 인민, 시대와 혁명

제29차 중앙과학기술축

전이 조선과학기술총련맹

중앙위원회의 주최로 4월

23일부터 5월 2일까지

3대혁명전시관에서 열리게

축전은 첨단기술개발, 과학

과학연구 및 교육기관, 공

장, 기업소, 협동농장을 비롯

한 단위들과 과학자,기술

자, 교원, 로동자, 농민, 3대

혁명소조원,일군들이 참가

하는 축전에서는 지난 2월

부터 3월사이에 있은 성, 중

경

도(직할시)과학기술축전들 이다.

기술과 생산의 밀착을 주제로

된다.

하고있다.

새 기술교류가 활발히 벌어질

제29차 중앙과학기술축전

게 된다.

있게 된다.

올리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영화상영주간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혁명 업적을 보여주는 《한평생 인민 들속에서》,《어버이수령님 로동계급과 함께 계시여》, 《위대한 은인》, 《혁명적의리》 를 비롯한 기록영화들이 평양 하였다. 일찌기 그 누구도 지닌 시와 각지의 영화관, 문화회관 적이 없는 천재적예지와 탁월 들에서 상영되게 된다. 한 령도력, 숭고한 인덕을 체현 하신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조선의 별》, 《화성의숙에서 의 한해여름》, 《민족의 태양》. 《한장의 사진》,《월미도》등 예술영화들도 상영된다.

개막식이 8일 평양국제영화

이 개막되였다.

회관에서 진행되였다. 관계부문 일군들, 영화예술부 문 창작가, 예술인들, 시내근로 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한철 문화성 부상이 개막연설 을 하였다. 연설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102 돐을 맞으며 태양절경축 영화 상영주간이 개막된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4월 15일은 민족수난의 비 앞에 쌓아올리신 가장 특출한 운이 드리웠던 삼천리강산에 업적으로 조국청사에 길이 민족재생의 위대한 태양이 빛나고있다고 강조하였다. 솟아오른 대통운의 날이였으며 영화상영주간을 통하여 인류력사상 처음으로 자주성을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지향하는 세계 진보적인류의 어버이수령님의 성스러운 혁명 앞길에 주체시대의 서막을 알 생애를 다시금 뜨겁게 간직하게 리는 세기적사변이였다고 강조

될것이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를 단결의 유일중심, 령도의 유일중심으로 높이 모시고 백두산대국의 최후승리를 향 하여 몸바쳐 투쟁해나갈 굳은 결의를 다지게 될것이라고 강조 하였다. 연설자는 전체 참가 자들이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유훈대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의 선군혁명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강성국가건설과 조국 통일을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 가리라는 확신을 표명하면서 태양절경축 영화상영주간 개막 을 선언하였다.

개막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 들은 기록영화 《한평생 인민 들속에서》(6)를 관람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에서 우수하게 평가된 과학

기술성과와 경험들이 발표되

축전에서는 단체, 개인별로

과학기술성과발표회를 진행

하며 최첨단과학기술강의와

새 기술교류, 전시경연 등이

전사회적관심속에 진행될

제29차 중앙과학기술축전

은 올해를 과학기술로 비약

하며 승리하는 해로 빛내일

데 대한 당의 호소를 철저

히 관철하며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최첨단돌파전의

열풍을 세차게 일으키도록

방

문

의강성국 그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백두대지에 로동당만세소리 울려퍼지게 하리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사상전선에서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전세 모 대들처럼 혁명적대고조로 당중앙을 옹위하는 돌격전 만 의 기수, 위훈의 창조자가 되도록 힘있게 불러일으켜 0: 합니다. »

온 대홍단군이 부글부글 끓 는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보내주신 모란봉악단의 공연

정조기등카

이번 모란봉악단공연을 통하여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유훈을 받들어 대홍단을 더욱

살기 좋은 고장으로 전변시켜

나가기를 바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과 기대를

위대한 령도자

《갑자농사혁명을 일으키

는데서 량강도가 모범이

대홍단군이 전국의 앞장에

모란봉악단공연무대를 우리

고장에 펼치도록 하여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높은 뜻을

언제나 심장에 새기고 앙양된

대중의 열의를 최대로 발양시

켜 우리 군을 더욱 살기 좋은

고장으로 전변시키기 위한 투

쟁을 과감히 벌려나가겠다.

박 되여야 하지만 여기에서도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다시한번 절감하였다.

같이 지적하시였다.

향 서야 합니다. »

굥

연

을

본

홍

군

아

근

0]

끓

 \mathbf{O}

H-

<u>O</u>

TO STATE

<u>O</u>

인민들이 총진군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일으키고있다.

건강가운 사회를 김일성 - 김정일주의화하자!

홍 암농 장에 서

위대한 장군님의 현지지도 자욱이 뜨겁게 어려있는 이 농장에서는 지금 밀, 보리씨 뿌리기가 여느때없이 앙양된 분위기속에서 힘차게 벌어지 고있다.

우리와 만난 대홍단군 홍암 농장 제4작업반 반장 박룡철

고장으로

감자농사는 대홍단군에서처

럼 과학기술적으로 하여야 한

다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믿음을 한시도 잊지

않고 최신과학기술에 기초하

여 육성한 다수확품종에 의한

감자생산을 더욱 늘이며 감자

재배와 가공, 보관관리에 이르

기까지 모든 공정을 보다 과

학화하기 위한 사업을 전망성

모든 영농공정의 종합적기

계화를 보다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여 정보당 수확고를 휠

담보를 마련하겠다. 이와 함께

감자가공공장, 군고기가공공

장을 비롯한 생산기지들의 현

대화를 적극 다그쳐 제품의

가지수를 늘이고 그 질을 높

여나감으로써 군의 물질기술

적토대를 더욱 튼튼히 다지고

인민들이 실질적으로 그 덕을

씬 높여나갈수 있는 확고한

있게 밀고나가겠다.

모란봉악단의 공연에서 영광의 대지에 깃들어있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헌신과 로고의 력사를 보았고 오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또다시 베풀어주시는 하늘같은 믿음의 세계를 페부로 절감하였다.

모란봉악단의 창조기풍, 투쟁기풍을 본받아 사상전의 총공세를 드세차게 벌려 작업 반안의 모든 농업근로자들을 올해생산목표수행에로 적극

전변시키겠[

해마다 살림집건설을 줄기

차게 밀고나가면서 올해에

혁명사적판건설, 경기장개건

등을 힘있게 다그쳐 군의 면

위대한 장군님께서 우리

군에 파견하여주신 제대군인

들이 당의 감자농사혁명방침

관철에서 핵심적역할을 수행

하도록 적극 고무하고 이끌어

군당위원회가 모란봉악단공

여과 더불어 앙양된 대중의

열의에 맞게 군을 더욱 살기

좋은 고장으로 전변시키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려

우리 대홍단군에서부터 로동

당만세소리, 사회주의만세소

리가 높이 울려퍼지게 하겠다

모를 일신시켜나가겠다.

보게 하겠다.

주겠다.

농장에서 일하는 박행숙, 최분희, 리철련동무들은 모란 봉악단의 공연에서 울려퍼진 대홍단의 노래들은 노래이기 전에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은덕을 한시도 잊지 말고 감자 농사에서 새로운 비약을 이룩 하라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절절한 당부라고 생각한다, 얼마전에는 군의 모든 세대들 에 은정어린 물고기를 보내주

시고 고마움의 인사도 올리지

게 모란봉악단 까지 보내주신 경 애 하 는 심정을 열렬 토로하였다.

못한 우리들에

원수님의 하늘 같은 믿음에 몸 이 천쪼각,만 쪼각이 난대도 기어이 보답하 겠다고 자기들 비단 이들만 이 아니다.밤 새워가며 새 전 투를 작전하고

앞채를 메고 달

리는 일군들로

부터 농기계들의

화초병들을 비롯한 농업근로 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에 이르 기까지 누구라 할것없이 결사 전에 진입한 병사들마냥 충천한 기세로 당의 사상 관철전, 당정책옹위전에 떨

쳐나섰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과 믿음을 생명선으로 간직하고 불타는 충정의 맹세로 심장을 끓이는 대홍단사람들이 있는 한 반드시 이 땅에는 풍요한 가을이 펼쳐지게 될것이다.

대 홍 단 감 자 가공공장에서

필승의 신심을 백배해주는 모란봉악단의 공연을 본 대홍 단감자가공공장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군안의 인민들의 생활향상을 위한 보람찬 투쟁 에 산악같이 떨쳐나섰다.

우리와 만난 직장장들인 정 봉일, 김경수동무들은 이렇게 말하였다.

-모란봉악단공연을 관람한 후 종업원들모두가 공연이야 기로 꽃을 피우며 활기에 넘 쳐 생산전투에 달라붙었다. 《모란봉》의 노래폭탄이 정말 위력하다. 무대배경에 살기 좋은 우리 군의 행복넘친 화폭

좋아하였다. 우리 군인민들의 웃음넘친 생활속에 우리가 바쳐온 노력도 슴배여있다는 긍지와 자부심때문이였다.

국필동무를 만나 이야기를 나 누었다. 《자만하지 말고 인민을 위

우리는 현장에서 지배인 박

해 일을 더 많이 하라는것이 여러해전 공장을 찾으시여 어버이장군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간平한 당부였습니다. 우리들은 모란봉악단의 노래

를 심장깊이 간직하고 백두대 지에 인민의 행복의 웃음소 리, 로동당만세소리가 높이 울리게 하기 위하여 힘찬 투 쟁을 벌려나가겠습니다.》

공장을 더욱 훌륭히 개건하 고 제품의 가지수를 늘이며 질 을 높이기 위한 이들의 투쟁목 표는 매우 높다.

그러나 이번에 모란봉악단 의 공연을 통하여 대홍단사람 들에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믿음과 기대를 사무치게 절감한 이곳 일군들과 종업원 들의 힘찬 투쟁은 반드시 빛 나는 결실을 맺게 될것이다. 글 본사기자 리

사진 본사기자 전성 남 (현지에서 전송)

바다먼 고장에서 사는



앙기판과 대학, 평양시와 각 추동하는 좋은 계기로 될것

마쟈르외부성대표단

야까브 뻬때르총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마쟈르외무성 하였다.

김일성대원수님께서 탄생 하시여 어린시절을 보내

들으면서 소중히 보존되여 있는 사적물들을 주의깊게 돌아보았다.

예술축전에 참가할 재미

제29차 4월의 8일 비행기로

【조선중앙통신】

봄 친선예술축전 평양에 도착하 에 참가할 재미

시며 혁명의 큰뜻을 키우신 제29차 4월의 봄 친선 도 착

조 선 인 예 술 단

만가동을 위하 백배해진 함께

위 대 한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혁명적인 노래는 투쟁

의 대오에 높이 울리는 진군가이며 시대의 행진곡 01CF. »

경애하는 원수님의 따뜻한 사랑과 정을 안고온 모란봉악 단의 공연을 본 백암군 인민 들의 기세는 하늘을 찌를듯 높다.

김승남동무는 모란봉악단의 녀성중창《인민은 일편단심》 은 그대로 백암땅 제대군인들 의 심장에서 끓고있는 한결같 은 맹세이기도 하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는것을 굳게 결의한다. 대홍단군당위원회 책임비서 김동일

관철해나가겠다. 그 대오속에 제대군인들인 우리 부부도 언제나 함께 서 있을것이다.

제대군인들의 맹세 백암군 원봉농장 분조장

백암군을 나라의 대규모감 자산지로 전변시키실 원대한 동된 심정을 이렇게 토로하

령 도 자 구상을 안으시고 멀고먼 백암 땅을 찾으시여 군이 나아갈 길을 환히 밝혀주시던 위대한 장군님의 고귀한 유훈을 우리 제대군인들이 앞장에서 결사

> 우리의 불타는 충정이 그대 로 드넓은 대지에 아름다운 감자꽃바다로 펼쳐질 때 그에

> 대한 취재를 꼭 부탁한다. 《모란봉》의 노래를 심 장 에 안 고 백암군협동농장경영위원

회 농촌자재상사 사장인 림득재는 한시간이 넘도록 공연이 진행되였지만 어떻 게 시간이 흘러갔는지 전혀 몰랐다고 하면서 자기의 격

우리 백암군 인민들에게 은정어린 물고기를 보내주신 데 이어 오늘은 또 국보적인 예술단체인 모란봉악단을 보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 이시다. 진정 우리 원수님은 먼곳에

있는 자식들에게 더 정을 쏟아붓는 친부모의 심정으로 온 나라를 돌보시는 자애로운 어버이이시다.

나는 모란봉악단이 백두산 지구에 승리의 진군가로 높 이 울린 혁명의 노래, 투쟁의 노래를 언제나 심장깊이 간 직하고 대홍단군과의 감자농 사경쟁열풍을 일으켜나가는 데서 중요한 초소를 맡은 일 군답게 발이 닳도록 뛰고 또

본사기자 김명훈 교조선인예술단이



미싸일방위체계구축책동은

불구하고 미싸일방위체계수립을 계속 강행하고있다.

얼마전에 발표된 4개년국방전략검토 보고서에 이에 대해 명백히 밝혀져있다. 미국의 미싸일방위체계개념의 뿌리 는 랭전시기 레간행정부가 이전 쏘련 을 겨냥하여 내놓은 《전략방위구상》, 일명 《별세계전쟁》계획이다. 이것은 우 주를 독점하고 군사화하여 쏘련을 군 사적우세로 제압함으로써 세계제패야 망을 실현하는것을 목적으로 한것이였 다. 미국은 이 계획실현을 위해 막대한

자금을 탕진하였다. 하지만 그것은 실

현불가능한 허황한 꿈이라는 비난만

받고 중단되였다. 그후 미국은 《별세계전쟁》계획의 개 량형인 《빛나는 조약돌》구상이라는것 을 내놓았다. 이것 역시 우주에 고성능 미싸일공격체계를 구축하는것을 중심 으로 하는 《별세계전쟁》계획의 복사판 이였다. 그에 이어 나타난것이 바로 오 늘의 미싸일방위체계이다.

미국의 미싸일방위체계는 말이 방위 이지 다른 나라들을 미싸일로 타격하 기 위한 공격체계이다. 현재 미국이 추 진하고있는 미싸일방위체계는 세계 여 러 지역에 배치한 전파탐지소들, 우주 에 쏴올린 감시위성들과 련결된 요격 미싸일들을 지상기지들과 전투함선들 에 배비하여 임의의 방향에서 저들의 비위에 거슬리는 나라들의 미싸일들을 타격하기 위한것이다.

이미 미국은 유럽의 넓은 지역에 미 싸일방위체계를 구축하기 시작하였으 며 그것을 중동과 아시아태평양의 넓 은 지역으로 확대하고있다.

지금 미국의 미싸일방위체계는 아시 아태평양지역의 대국들을 동쪽과 서쪽 에서 압축하는 방향에서 형성되고있 다. 이 나라들은 미국이 저들에게 도전

미국이 국제사회의 강력한 반대에도 할수 있는 잠재적적수로 여기는 나라 들이다. 최근년간에 와서 이 나라들의 정치, 경제, 군사적잠재력은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커지고있다. 미국은 이 나 라들을 군사적으로 제압하지 않고서는 아시아태평양중시전략을 실현할수 없 고 나아가서 세계를 제패할수 없다고 보고있다.

미국은 강력한 미싸일방위체계를 구 축하면 저들의 피해는 극력 줄이면서 도 상대측에 대한 타격효과를 최대로 높일수 있다고 보고있다.

만일 잠재적적수들이 미국에 대항 하여 군비경쟁에 말려들면 그들의 맥 을 뽑을수 있고 또 한쪽으로는 미싸일 방위체계를 계속 완성하고 확대해나 감으로써 다른 대국들의 핵보복능력 을 무력화시켜 저들의 군사적패권을 보다 절대화할수 있다는것이 미국의 타산이다.

바로 이로부터 미국은 이번에 4개 년국방전략검토보고서에서 그 무슨 본토방위를 구실로 3대전략핵타격수 단들을 계속 유지하며 강력한 미싸일 방위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고 외워 댄것이다.

미국의 말대로 미싸일방위체계가 순 수 방위를 위한것이라면 그 전개지역 이 미국본토나 제한된 범위에 국한되 여야 한다. 그러나 미국의 미싸일방위 체계는 세계 전지역을 포팔하고있으며 특히 아시아태평양지역을 기본작전지

역으로 하여 전개되고있다. 문제는 미국이 또다시 판에 박은 우 리의 《도발》과 《위협》에 대해 떠들어 대면서 미싸일방위체계구축의 필요성 을 운운한것이다.

그 구체적내용을 보면 우리의 장거 리미싸일과 핵억제력이 조선반도와 동 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며 미국에 대한 증대되는 직접적인 《위

협》으로 되고있다는것, 때문에 동북아 시아와 본토방위를 위하여 강력한 미 싸일방위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는것

미국이 미싸일방위체계구축이 우리 때문이라고 하지만 실지로는 잠재적적 수들. 찍어말하면 중국과 로씨야를 군 사적힘으로 견제하기 위한것이다. 분석가들도 미국의 미싸일방위체계의 90%가 아시아태평양지역에 전개되 고있다고 하면서 그 목적은 로씨야와 중국의 군사적잠재력을 억제하는것이 라고 평하고있다.

로씨야와 중국도 이것을 모르는바가 아니다. 이 나라들이 자기 주변에 미국 의 미싸일방위체계요소들이 전개되고 있는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면 서 공동으로 대응해나가려 하고있는것 은 우연하지 않다.

미국의 무분별한 책동은 아시아태평 양지역 정세를 악화시키고 새로운 랭 전을 몰아오고있다. 지역에서는 대국 들사이의 군비경쟁이 격화되고있으며 다른 나라들도 부득불 자위를 위해 군 사력강화에 힘을 넣고있다. 아시아태 평양지역에는 군사적대결과 충돌의 위 험이 조성되고있다.

현실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장본인, 위협국가는 다름아 닌 미국이라는것을 톡톡히 보여주고있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마치도 우리가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 를 《파괴》하고 미국본토를 《위협》하는 것처럼 여론을 내돌리는데는 노리는 목적이 있기때문이다. 그것은 바로 있 지도 않는 우리의 《위협》이라는 허구 를 만들어내여 침략적인 아시아태평양 중시전략과 그를 군사적힘으로 뒤받침 하기 위한 미싸일방위체계구축책동을

합리화하자는것이다.

합리화될수 없다 변동이 있더라도 아시아태평양지역에

로 중심축을 이동하고 지역을 확고히 장악하겠다는 전략에는 변화가 없으며 에 대한 기만이고 우롱이다. 실지 위협에 대해 론한다면 우리가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것을 보다 명

2020년까지 미해군무력의 60%를 아시아태평양지역에 전개할 것이라고 하였으며 핵무기의 타격능력 을 높이고 미싸일방위체계구축에 박차 를 가하기로 하였다.

백히 하였다.

미국의 이러한 군사적움직임은 《적 의 존재 또는 위협》이라는 명분을 필 요로 하고있다. 그런데 동북아시아에 미국의 공개적인 적수는 우리 공화국 밖에 없다. 큰 나라들은 공개적으로는 서로를 적으로 묘사하기를 삼가하고있 다. 이런 조건에서 미국은 우리의 《위 협》을 여론화하고 그것을 더욱 부각시 켜 저들의 미싸일방위체계구축책동을 합리화하려 하고있다. 그 실현을 위하 여 미국은 우리의 《도발》과 《위협》에 대해 떠들고있는것이다.

이것은 미국이 아시아태평양중시의 국방전략을 실현하기 위해 우리 공화 국을 계속 적으로 남겨두고 우리의 《도발》과 《위협》에 대해 계속 떠들어 대면서 조선반도에서 긴장상태를 의도 적으로 격화시키며 우리를 군사적으로 압박하기 위한 책동에 더욱 악랄하게 매여달리게 될것이라는것을 시사해주 고있다. 또 언제든지 미국이 잠재적적 수들에 대한 군사적포위망을 조이기 위해 우리 공화국을 무력으로 침략할 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미국이 우리의 《위협》에 대해 떠드 는것은 완전히 무근거한것이며 궤변에 지나지 않는다. 미국이 우리가 동북아 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고 저 들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있다고 아 무리 떠들어도 그것을 곧이 믿을 사람

미당국자들이 우리의 《위협》설을 들 고나오는것은 언어도단이며 국제사회

미국에 대고 할 소리이다. 미국은 세계 적으로 가장 많은 핵무기와 미싸일을 가지고있는 나라이다. 그들은 이것을 남조선과 그 주변지역에 배비해놓고 우리에 대한 선제공격기도를 공공연히 드러내보이면서 군사적으로 위협공갈 하고있다. 이로 하여 조선반도와 동북 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이 파괴되고 위 협을 받고있다.

우리의 핵무기는 철저히 자위를 위 한것이며 조선반도에서 전쟁을 방지하 고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것이다. 결코 그 누구를 위협하기 위한것이 아니다.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존엄을 수호 하기 위해 전쟁억제력을 강화하는것은 우리의 당당한 자주적권리이다. 우리 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나라라면 우리 의 전쟁억제력에 대해 하등의 위구심 을 가질 필요가 없다. 이것은 세계가 공인하고있다.

미국이 우리의 전쟁억제력을 걸고들 며 《위협》이니, 《도발》이니 뭐니 하는 것은 미싸일방위체계구축책동을 합리 화하기 위한 유치한 구실에 불과하다.

미국이 우리의 미싸일을 막기 위해 유럽과 중동은 물론 알라스카로부터 일본, 남조선, 필리핀, 오스트랄리아까 지 미싸일방위망을 늘인다는것은 말도 되지 않으며 론리에도 맞지 않는다.

미국은 우리를 걸고 세계제패야망을 실현하려 하고있다.

세계최대의 핵무기 및 미싸일보유국 인 미국이 우리를 군사적으로 위협공 갈하고있는 조건에서 우리가 전쟁억제 력을 끊임없이 확대강화하는것은 지극 히 당연하다.

여러 나라와 지역기구에서 보도 조선반도에서 새 전쟁을 막고 리해관계로부터 유엔안전보장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 우리의 진지한 노력이 적대세력 들의 엄중한 도전에 부닥치게 된것과 관련하여 발표한 조선민 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성명 을 3월 30일부터 4월 1일까지 의 기간에 여러 나라와 지역기 구에서 보도하였다.

중국의 인터네트홈페지 인민 망은 조선외무성이 성명에서 미 국이 유엔안전보장리사회를 도 용하여 조선을 고립압살하려고 하는데 대처하여 조선은 핵억제 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새로 운 형태의 핵시험도 배제하지 않을것이라고 강조하였다고 하 면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성명은 조선의 로케트발사가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과 침 략적인 핵전쟁연습이 날로 더 강화되고있는 엄중한 사태에 대 처하기 위한 조선군대의 자위적 인 군사훈련이라고 주장하였다.

올해에 들어와 조선의 주동적 이며 평화애호적인 성의와 노력 에 의하여 조선반도에 완화기운 이 조성되여가고있었음에도 불 구하고 미국과 남조선은 끝끝내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 연습을 벌려놓았을뿐아니라 그 규모와 위험성은 점차 커져 3월 27일에 시작된 《쌍룡》훈련 에는 1993년이후 최대규모의 병력이 참가하였으며 《평양점 령》을 기본목표로 삼고 벌어지 고있다고 성명은 까밝혔다.

성명은 미국이 저들의 전략적

리사회를 도용하여 조선을 고립 압살하려는 책동에 계속 매여달 리는 한 조선도 정당방위할 권 리가 있으며 그렇게 할 준비도 다 되여있다고 지적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미국은 경거망동하지 말고 심 사숙고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성 명은 조선반도에서 누구도 바라 지 않는 파국적인 사태가 초래된 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미국이 지게 될것이라고 경고하였다.

중국의 신화통신, 중국보도 사,로씨야의 이따르-따쓰통 신,미국의 신문 《뉴욕 타임 스》, VOA방송, CNN방송, 영국 의 로이터통신, 오스트랄리아 ABC방송, 일본의 교도통신, 지 지통신, NHK방송도 우리 나라 외무성 성명을 보도하였다.

한편 로씨야의 데웨-로쓰통 신,인터네트잡지들인 《마르 12》, 《한베르 져널》, 《렘취취》, 인터네트TV 《크라스노예 쩰레 비제니예》, 이딸리아인터네트 잡지 《스따또 에 뽀뗸짜》와 로 씨야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 국과의 런대성그루빠, 로스또 브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협 회, 반《세계화》운동, 끼로브주 체사상연구협회,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과의 련대성 브라질 위원회, 동유럽 및 중앙아시아 지역 주체사상과 선군정치연구 협회 국제련합 인터네트홈페지 가 성명을 전문 또는 요지로 전 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법적, 도덕적의무에 충실해야 한다

지은 죄를 솔직히 인정하고 배상하는것은 초 보적인 도덕적의무이다.

그러나 일본은 아직까지도 자기의 어지러운 과 거사를 인정하려 하지 않고있으며 오히려 그 책 임에서 벗어나보려고 오그랑수를 쓰고있다.

얼마전 중국에서 제 2 차 세계대전시기 일본이 《국가총동원령》을 발동하여 끌어간 조선녀성들 을 비롯한 일본군성노예들에 대한 25건의 자료 가 새로 발굴되였다. 중국 길림성기록보판소가 이 문서원본들을 공개하였다. 이로써 일본군성노 예범죄가 정부와 군부의 직접적인 개입밑에 조직 적으로 감행되였다는것이 론박할수 없는 증거로 밝혀졌다.

일본군성노예제도는 세계가 공인하고 규탄하 는 특대형반인륜적범죄이다.

세계 곳곳에서 발굴되고있는 수많은 자료들과 증거물들은 일제침략군의 잔인성과 악랄성을 만 천하에 낱낱이 폭로하고있다.

문제는 부인할수 없는 명백한 증거자료들이 있 음에도 불구하고 철면피하게 놀아대는 일본의 고 약한 태도이다. 머리를 뻣뻣이 쳐들고 저들의 추 악한 범죄행위를 공공연히 부정하고 정당화하고

그들은 《군이나 관헌이 강제련행을 했음을 보 여주는 근거자료가 없다. 》고 하면서 과거범죄를 계속 부인하고 정당화해나서고있다.

더우기 엄중한것은 최근 일본이 허튼 요술을 피우며 낯간지럽게 놀아대고있는것이다. 일본의 당국자들부터가 고노담화와 무라야마담화를 부 정하는 망발들을 거리낌없이 내뱉고있는 판이 다. 최근에도 문부과학상이라는자는 《고노담화와 무라야마담화는 정부의 통일된 견해가 아니》라 고 뇌까렸다.

고노담화와 무라야마담화로 말하면 이전 관방 장관과 수상이 일본군《위안부》동원의 강제성과 과거침략력사를 인정, 사죄한것이다.

이전 집권자들이 인정, 사죄한것마저 부정해나 서고있으니 현 당국자들이야말로 속통이 바르지 않은 저속한자들이라고 하지 않을수 없다. 지금도 일본은 이러저러한 구실을 붙여가며 저

아랍국가련맹 수뇌자회의가

사, 안보, 정보기술, 교육 등 여

러 분야에서 쌍무관계를 발전시

합의는 싱가포르대통령

중국 장강의 삼협수력발전

소는 세계적으로 규모가 가장

큰 수력발전소로 널리 알려져

이 발전소는 호북성의 의창시

를 가로질러 흐르는 장강의 서

킬데 대해 합의하였다.

릉협에 자리잡고있다.

이 발전소의 전

력생산량은 전국

적인 수력발전량

의 20%를 차지

있다.

지른 과거죄행에 대한 국가적책임과 배상을 회피 하려고 온갖 술책을 다 쓰고있다.

력사와 현실을 대하는 일본반동들의 태도와 자 세는 그들이 과거의 반인륜적범죄행위에 대해 죄 의식을 느끼기는 교사하고 군국화, 우경화를 더 욱 다그쳐 지난 시기 이룩하지 못한 옛꿈을 기어 이 실현하기 위해 발악하고있다는것을 폭로해주

일본이 과거범죄를 청산하는것은 단순히 사죄 와 배상에 관한 문제만이 아니다. 그것은 죄악에 찬 과거와 결별하고 새 출발을 하려는 의지가 있 는가 없는가 하는것을 가르는 기준이다. 그것은 일본이 국제사회의 한 성원으로 뗫뗫이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추는가 못 갖추는가를 보여주 는 심각한 문제인 동시에 세계의 평화, 인류의 미래와 관련되는 정치도덕적문제, 국제법적문제

지난 시기 일본은 우리 인민에게 헤아릴수 없 는 피해를 입혔다. 그것을 꼽자면 끝이 없다. 조 선사람치고 일제에 의해 피해를 입지 않은 사람 이 없다.

일본은 이러한 과거죄행에 대하여 아직까지 아 무러한 사죄도 배상도 하지 않고있다. 그처럼 엄 청난 정신도덕적 및 인적, 물적피해를 입히고서 도 시치미를 뗴는 일본과 막대한 재난을 당하고 아무런 사죄도 배상도 받지 못한 우리 공화국사 이의 관계가 바로되자면 무엇이 필요한가는 누구 에게나 명백하다.

자기의 범죄행위로 하여 피해를 당한 사람에 게 사죄하고 배상하는것은 법률적으로나 도덕적 으로 마땅하다. 일본은 조일관계의 근본을 똑바 로 보고 성실한 자세로 그에 림하여야 한다.

조일관계개선문제가 해결되자면 피해자와 가 해자사이의 력사적미결문제부터 풀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과거청산이다. 과거청산이야말로 조 일관계정상화의 선결조건이다.

죄를 지었으면 성근하게 반성하고 진심으로 자 기의 잘못을 씻어야 한다. 일본에는 그 길밖에 없다.

명

3월 25일과 26일 쿠웨이트의 반들과 정부고위대표들이 참가 수도에서 진행되였다. 필리핀과 싱가포르가 3일 군

아랍국가련맹 수뇌자회의 진행

필리핀방문과정에 이룩

회의에는 현맹성원국 국가수

와 아랍나라들사이의 관계를 강 화하고 의견상이를 해소할데 관 한 문제 등이 토의되였다.

회의에서는 팔레스티나문제

여래 라 협 조 라 국회들사이의 교류와 협조를

되였다.

같은 날 중국과 수단은 두 나

【조선중앙통신】

는 장강 삼협수력발전소를 참판 하시였다. 동행한 중국의 일군들로부터

발전소건설에 대한 해설을 들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언 제공사장과 건설장의 여러곳을

최대규모의 장강 삼협수령발전소

은 중국인민의 재능과 힘의 과

는 어려운 공사였지만 중국정

부는 광범한 인민들을 불러일

으켜 모든 공사과제들을 성과

발전소건설과정에 수많은 기

적으로 수행하였다.

애로와 난판을 이겨내야 하

시로 된다고 말씀하시였다.

한다고 한다. 발전 소건설로 이 지역에서의 수상운 돌아보시면서 건설정형에 대하 수가 활발해졌고 큰물피해로부 여 구체적으로 알아보시였다. 터 발전소주변의 도시와 농촌들 이날 장군님께서는 거창하게 일 떠서고있는 세계적인 삼협수력 을 보호할수 있는 담보가 마련 되게 되였다. 발전소는 중국력사에 남을 위대 한 창조물이라고 하시면서 이것

이 발전소에는 조중친선관계 발전을 위해 쌓아올리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이 깃들어 있다.

주체 9 5 (2 0 0 6)년 1월 중화인민공화국에 대한 비공식 방문의 길에 오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중국의 중앙과 성 의 지도간부들의 안내를 받으시

강화하기로 하였다.

적들이 창조되였으며 2009 며 호북성 의창시에 자리잡고있 년 드디여 완공을 선포할수 있

> ... 삼협수력발전소건설이 가지 는 경제적의의는 전력생산에 있 다. 이와 함께 큰물피해로부터 류역의 안전을 보장할수 있게

되였다. 력사적으로 장강 상류의 수많은 지 류들에서는 큰물이 자주 발생하였다.

큰물이 날 때마다 수많은 마을 들이 침수되고 지역의 안전에 위협을 주군 하였다. 삼협수력 발전소건설이 완공된 후 수백년 만에 오는 큰물에도 끄떡없이 지역의 안전을 담보하고있다. 수상운수발전에도 크게 기여하 고있다.

오늘 장강의 삼협수력발전소 는 중국인민의 불굴의 기개와 영웅적위훈을 전하는 력사의 증 견자로 되고있다.

베이징발 본사특파기자 백 산 해

지진 피해를 가시기 위해

칠레대통령 미첼레 바첼레뜨 가 2일 한 회의에서 강한 지진 과 해일피해를 입은 북부지역에 서 복구사업을 적극 추진시킬것 을 호소하였다. 그는 지진으로 이 지역의 보건시설들이 파괴된 것과 관련하여 이동식의료시설

들을 보내여 부상자들에 대한 치료사업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말하였다. 또한 물과 전력공급 망을 시급히 회복하고 파괴된 살림집들과 도로, 하부구조들을 원상복구하는데 힘을 넣어야 한 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며 주민들속에서 해설선전사업

는 정부가 조류독감방지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나갈

을 벌리는 등 조치를 취하였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아직도 해 야 할 일들이 많다고 하면서 그

조류독감방지분제에 대해 언급

캄보쟈수상 훈 센이 3월 28 일 농업토론회 페막식에서 연설 하면서 조류독감방지문제에 대 해 언급하였다. 그는 지금까지 정부가 조류독

감이 발생한 지역들을 철저히 격리시키고 소독사업을 강화하

국제적문화교류를 강화할 립장 표명

이란문화상이 3월 30일 한 회의에서 국제적문화교류를 강 화해나갈 자기 나라 정부의 립

은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를 발 전시키기 위한 필수적요구라고 하면서 이란과 외국문예인들사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장을 밝혔다. 그는 문화교류를 강화하는것 고 말하였다.

를 위해 민족적대화를 실현할것

민족적대화를 실현할것을 호소 베네수엘라외무상 엘리아스 들이 사회주의정권을 뒤집어엎 하우아 밀라노가 3월 28일 TV 으려는 일부 극단주의그루빠들 방송파의 회견에서 나라의 평화 의 시도를 배격하고 평화를 위 한 민족적대화에 적극 참가해

이의 왕래를 확대해나갈것이라

이스라엘의 부당한 처사 비난

을 호소하였다. 그는 모든 정당 야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3월 28일 기자회견에서 이스라 엘의 부당한 처사를 신랄히 비

난하였다. 이스라엘당국이 석방하게 되 여있는 마지막 팔레스티나인수 감자그루빠를 내놓는것을 연기 하기로 결정한것과 관련하여 그

팔레스티나수감자문제상이 는 이것은 이스라엘이 진심으로 중동평화문제를 대하지 않고있 다는것을 보여준다고 까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평화협상과 평화 과정의 운명은 전적으로 이스라 엘이 신용을 지키는가, 이미 약 속된 공약을 리행하는가 하는데 달려있다고 강조하였다.

g==|| 국방력강화와 사회적진보를 위하여 ||==g

로 씨 야 에 서 로씨야해군이 최근 대륙간탄 도미싸일 《라이네르》를 실전배 비하였다.이 미싸일은 미싸일 방위체계를 극복할수 있는 소형

탄두를 8~10개 탑재할수 있다

고 한다. 2일 인뗴르팍스통신이

이에 대해 전하였다. 로씨야북함대 함선들이 최근 지중해에서 대공방어훈련을 진

행하였다. 훈련에는 비행기탑재중순양 함 《아드미랄 꾸즈네쪼브》호와 대형반잠함 《아드미랄 렙첸꼬》

호가 참가하였다. 이밖에도 전자장애기동훈련, 기동상태에서의 생존훈련들을 진행하였다.

인 디 아 에 서 인디아가 3월 28일 오리 싸주에서 국산제《프리트비-2》지대지미싸일을 시험발사 하였다.

이동식발사대에서 발사된 이 미싸일은 사거리가 350km이며 500~1 000kg의 탄두를 탑재 할수 있다고 한다.

이 란 에 서 이란에서 최근 페르샤만수역

물 중국의 여러 지역에서 최근

무더기비에 의한 큰물피해를 입 3월 28일부터 내린 무더기비 로 3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복 건성, 강서성, 호남성, 광동성을 비롯한 7개의 성에서 16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2명이 행방

불명되였다. 총피해자수는 83

亚

된 태풍과 폭우로 인한 피해가 확대되고있다. 3일현재 7개의 도시와 12개의 현에서 14명이 사망하고 3명이 행방불명되였 으며 4 000여명이 긴급소개되

스텐슨 등은 잡지 《뷸레찐 오브

어토미크 싸이언티스트》 최신호

에 게재한 2014년 미국핵전력

보고서에서 이것은 우리 나라와

중국, 로씨야를 상대로 한 핵전

쟁계획을 위한것이라고 명백히

보는바와 같이 세계최초, 최

대의 핵범죄국인 미국의 무모한

핵제패야망을 가차없이 짓부셔

버리지 않고서는 세계가 언제

가도 핵참화의 위험에서 벗어날

세계의 비핵화문제가 실현되

기 전에는, 미국이 스스로 핵군

축의 길로 나오기 전에는 우리

가 절대로 핵억제력을 한순간도

내려놓을수 없다고 주장하는것

미국이 핵제패야망을 변함없

이 추구하는 한 우리는 그 누가

뭐라든 자체의 핵억제력을 계속

확대강화하는 길로 꿋꿋이 나아

【조선중앙통신】

밝혔다.

수 없다.

은 그때문이다.

갈것이다.

현지에서 피해를 가시기 위한

까자흐스딴의 북부지역에서 최근 큰물피해를 입었다. 3월 31일 저수지의 제방이 터지면 서 5명이 목숨을 잃고 9명이 부상당하였다. 또한 약 100채 의 살림집이 물에 잠기고 100

해 0 한

미국은 세계적인 핵문제를 산 생시킨 장본인이다.

미국이 아니라면 세계적인 핵 문제도 없었을것이며 세계의 비 핵화문제란 더더욱 제기되지도 않았을것이다.

1945년 7월 16일 첫 원자탄 시험을 강행하고 그해 8월 일본 의 히로시마와 나가사끼에 핵폭 탄을 투하함으로써 인류의 머리 우에 무서운 핵참화를 들씌운 미국은 그때로부터 장장 근 70 년동안 세계에 항시적인 핵전쟁 위험을 몰아왔다.

핵무기를 휘둘러 세계를 제패 하려는것은 미국의 변함없는 야 망이다.

그러한 미국이 《핵없는 세상》 을 제 먼저 들고다니는것은 그야 말로 언어도단이 아닐수 없다. 오늘도 미국은 《핵군축》의 막 뒤에서 핵무력을 강화하기 위한 책동에 계속 열을 올리고있다. 공식 발표된 자료에 의하더 라도 미국은 앞으로 20여년간

고있다. 미국의 사회단체인 《우려하는 과학자동맹》은 보고서를 통해 이러한 자료를 발표하면서 탄두 개량을 위한 600억US\$의 자 금이 미국이 앞으로 수십년동안 핵무력을 강화하는데 들이밀려

핵무기를 현대화하는데 600

억US\$를 지출할것을 계획하

는 자금량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새로운 제조시설들을 건설하는데 수십억US\$, 잠수함 과 같은 운반체계들을 개발하는 데만도 수십억US\$나 또 든다 고 밝혔다.

미국잡지 《뷸레찐 오브 어토 미크 싸이언티스트》가 최근에 발표한 2014년 미국핵전력보 고서에 의하면 미국은 현재 각 종 형태의 핵탄두 약 7 400개 를 보유하고있으며 그중 2 130 개는 사용중에 있다고 한다. 알려지지 않은것을 포함하면

실지 보유량은 훨씬 더 많은것

으로 전해지고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이 지난 2010년에 나토성원국들과 핵 무장을 강화하는 방안을 론의 한 사실이 알려져 여론이 분분 하였다.

벨지끄, 네데를란드 등 유럽 의 언론들이 전한데 의하면 당 시 미국은 나토성원국 군사기 지들에 배비되여있는 미국제 핵폭탄들을 새로 현대화된것 으로 교체, 배비할데 관한 비 밀협정을 그 나라들과 체결하

였다고 한다. 벨지끄에서만도 끌레인 브로 겔공군기지에 저축되여있는 미 국제《B-61》핵폭탄 20개가 새로 운 핵폭탄들로 교체되게 된다. 핵무기고를 유지,강화하기

위한 핵시험책동이 끊임없이 감 전에 공개되였다. 미국은 2050 행되고있다. 년까지 항공모함들을 《제랄드

세상사람들의 눈을 속이기 위 포드》급으로 세대교체를 완료할 해 핵폭발을 동반하지 않는 림 것을 획책하고있다. 계전핵시험에 매여달려온 미국 또한 미국은 아시아태평양지 역중시전략에 따라 핵전략잠수 은 그것이 폭로되여 강한 비난 에 부딪치자 최근년간에는 플루 함의 60%이상을 태평양수역에 토니움을 리용하는 보다 은폐적 집중배치하였다. 인 핵시험을 비밀리에 벌리다가 미국의 핵전문가인 한스 크리

역시 꼬리가 드러났다. 그 시험에서는 《제트 머쉰》 이라고 하는 장치가 리용되였 는데 강력한 X선을 방출하는 이 장치를 통해 핵무기성능을 평가하기 위한 융합반응을 조 성함으로써 핵무기를 검사하게 된다고 한다.

이러한 미국이기에 포괄적인 핵시험금지조약비준에 대해 말 만 뗴놓고 음으로양으로 왼새끼 를 꼬고있는것이다.

로씨야외무성은 미국이 포팔 적인 핵시험금지조약을 비준하 기 위한 실제적인 조치들을 취하 지 않고있다고 비난하면서 결국 조약이 아직까지 효력을 발생하 지 못하고있는 책임은 그 결정적 역할을 하는 국가들중의 하나인 미국에 있다고 단죄하였다.

한편 미국은 새로운 핵무장장 비들을 개발,배비하기 위한데 박차를 가하고있다.

7년만에 완성된 최신예핵항 공모함 《제랄드 포드》호가 얼마

하루에 60만bbl의 액화천연가 스를 수출할수 있는 이 출하장 은 가스운반에 드는 비용을 줄 이고 시간을 단축할수 있게 한 다고 한다. 이 나라의 파르스통 신이 이에 대해 전하였다.

에 첫 해상가스출하장을 건설하

여 조업하였다.

인도네시아에서 인도네시아에서 3월에 인플 레률이 2월의 7.75%로부터

1일 이 나라 국가통계국이 이 에 대해 밝혔다. 먄 마 에 서

먄마정부가 최근 마약반대투 쟁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계 획을 발표하였다. 그에 따라 올해부터 2019년

까지 나라의 51개 주민지역들 에서 반마약투쟁을 적극 벌리게 된다.이 나라에서는 지난해에 전국적으로 1만 2 700ha이상 의 마약재배지를 파괴하였다.



봉 뀰 에 서 집 집 승 방 목

만 4 000명에 달하였다.

광동성에서 최근 며칠째 계속 였다. 피해자수는 7만 4 000 명에 달하였다.

조치들이 취해지고있다.

여명이 대피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전염병 피해 나이제리아의 플래터우주에 서 최근 콜레라가 발생하여 피 해를 입고있다. 3일 정부가 밝 힌데 의하면 주에서 100여명의 콜레라환자가 등록되였으며 그 중 4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한 다. 병의 전파를 막기 위한 조치

들이 취해지고있다. 카나다에서 홍역이 퍼져 피해 를 입고있다. 최근 이 나라 보건 당국은 방쿠버시의 동부지역에 서 200여명의 어린이들이 홍 역에 걸린것으로 확인되였다고

밝혔다.

총기류범죄사건 발생 오스트랄리아의 시드니에서 얼마전 총기류범죄사건이 발생 -하여 사회적불안과 공포가 조성 되였다. 이날 무장한 범죄자들 이 승용차에 달려들어 마구 총 질을 하여 2명에게 심한 부상

을 입혔다. 일자리축감사래

일본에서 계속되는 경제침체 로 일자리축감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3월 28일 이 나라 총무 성은 2월에 운수부문과 우편봉 사부문에서 일자리가 지난해 같 은 달에 비해 14만개 줄어들었 다고 밝혔다.

ᇧ 빠나마에서 2일 리히터척도 로 6의 지진이 발생하였다. 진앙은 치리끼주의 남부지역 앞바다에 있었다고 한다.

【조선중앙통신】

편 집 위 원 회